

제 2 장: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에 대한 법 원칙 침해의 역사

이번 장에서는 불규칙기탁의 기존의 법 원칙을 역사 전반에 걸쳐 은행가들이 어떻게 침해해 왔는가를 다양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사회적 규제 메커니즘이 왜 이러한 악폐를 근절시키지 못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있어서 정부의 역할 또한 다뤄질 것이다. 정부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양심적으로 주력하기는커녕 거의 초창기부터 은행가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각종 면제와 특권을 허용했다. 이런 이유로 은행기관과 정부의 긴밀한 공모와 연대가 전통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하다. 또한 은행 예금에 대한 부분지급준비(fractional reserves) 제도의 악습의 기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은행의 부정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 시키려고 시도한 수많은 실패 사례들을 배울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제3장에서 다루겠다.

1. 서문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의 법적 성격은 명료하고 일관성이 있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돈을 맡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분명히 자신들이 저야 할 의무를 잘 알고 있었다. 좋은 부모처럼 동일한 양과 질의 물품(tantundem)을 보호하고 기탁자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체가능물의 기탁 계약이 갖는 보관의 정확한 의미다. 그러나 불규칙기탁 계약의 법적 성격이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반면, 인간의 속성은 불완전하고 나약하다. 그래서, 화폐 예금을 수령하는 이가 보관의 의무 위반 유혹에 빠져, 기탁자가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갖고 있어야 할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현실은 그런대로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 유혹은 매우 강하다. 기탁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은행가는 큰 액수의 돈을 주무를 수 있다. 그리고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상당한 이익 혹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그걸 유지할 수도 있다.¹ 나약한 인간의 본성과 은행가들이 느끼는 저항하기 힘든

¹ 우리는 은행가가 기탁자의 돈을 횡령하도록 유혹하는 가장 분명한 이윤의 원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출처 즉, 돈을 발행하거나 무에서 대부와 예금을 만들어내는 은행가의 능력에 대해 거론하겠다. 이로 인한 이윤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것이 추상적인 과정에서 얻어지는 만큼 은행가 자신도 금융진화가 아주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전체 과정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는 대신 직감으로만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 이윤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제4장에서는 은행가들이 어떻게 부분지급준비 제도로 기존의 법 원칙을 침해하여 무에서 대부를 만들어 내고 그 상환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유혹을 감안한다면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이 근거로 삼는 전통적인 보관의 원칙들이 아주 초창기부터 남모르게 위반되었다는 사실은 납득이 간다. 또한, 화폐가 가지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속성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법 원칙의 준수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권위자들도 특별한 사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위반 현상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일단 악폐와 사기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보다 상황이 이해하기 쉬워질 즈음에는, 이미 은행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큰 권력을 손에 넣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단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만들어내는 막대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이 점차 알게 되면서 은행가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법제화함으로써 결국 은행 사기의 공범자가 되고 마는 게 대부분이었으며, 그 대가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막대한 이익 챙김에 동참할 기회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은행가들은 국가의 자금 지원에 중요한 대체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정의하고 방어해야 할 국가의 전통적 의무가 이런 식으로 타락한 것은, 정부의 역사적 무책임성과 부족한 금융 통제력, 이로 인해 높아진 재원에 대한 정부의 거대하고 끊임없는 욕구에 의해 더욱 부추겨진 면이 없지 않다. 이리하여 정부와 은행가 사이에 점점 더 완벽하게 밀착된 이익을 위한 공생관계가 형성되었고, 이것은 대부분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사고를 할 줄 아는 일단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알아차렸다. 사라비아 데 라 칼레 박사(Doctor Saravia de la Calle)는 그의 저서 『Instrucción de mercaderes』에서 은행업의 파괴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은 사실 탓으로 돌린다.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은 신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철저히 몰아냈다. 내가 생각컨데, 이것은 공화국의 영적-세속적인 지도자의 태만 때문이 아닌가 한다.²

사라비아 데 라 칼레의 주장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면 그건 그가 국가 지도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규칙기탁에서 발생하는 사기성이 인간의 허약함이나 탐욕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악폐”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은 그저 “태만”의 탓으로만 돌린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분명히 알

살펴보겠다(거기다 이자까지 더해서 말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은행가가 어떻게 자금을 무에서 만들어내어 계속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² 루이스 사라비아 데 라 칼레, Instrucción de mercaderes (Medina del Campo:Pedro de Castro, 1544; Madrid: Colección de Joyas Bibliográficas, 1949), 8장, 179쪽.

수 있는 것은, 국가 지도자들의 태만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은행 “비즈니스”에서 큰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앞으로 보게 될 것은, 정부 당국이 특정 이득에 대한 대가로 은행가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특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부 은행을 설립하여 직접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은행 업무는 아주 오래되어서 화폐의 출현, 무역의 태동, 노동 분업의 시작³과 일치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은행가와 정부 관리들이 저지르는 전통적 법 원칙의 침해를 다음 세 가지 서로 다른 역사적 사례들 - 그리스 로마 세계, 중세기와 르네상스 초기의 지중해 무역 도시들, 그리고 17세기 이후 등장한 최초의 정부 은행 - 으로 구분해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 세 가지 역사적 사례에서 나타난 은행의 변화에는 놀라울 정도로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 각 사례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기존의 법 원칙을 위반하기 시작하면서 해로운 결과들이 뒤따랐는데, 그것은 은행의 파산뿐만 아니라 심각한 금융 경제 위기로도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사례들에서는 우선, 처음에는 모두 똑같은 사기 행각이 저질러지고, 다음에는 동일한 과정과 결과를 거쳐

³ 인류학자 레오노르 망뜨(Lenor Mant)는 바빌론 유적에서 도시간 무역이 있었고 상업과 금융의 지불 수단이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록된 점토판을 발견했다. 이 점토판에는 우르 시에 사는 수표 발행인, 아르두-나마가 오르케(Orkoe)시의 어음 수취인 마르둑-발-앗-이립에게 아르두 나마의 이름으로 4 미나와 15 쉐켈의 은을 정해진 기간 내에 벨-아발-이딘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다. 이 문서는 나보니두스(Nabonaid) 통치 2년째인 아라삼누(Arakhshamna) 14日 날짜로 되어 있다. 연구자인 힐프렉트(Hilprecht)는 니푸르市 유적에서 총 730 점의 명문이 새겨진 구운 점토판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은 기원전 400년경 이 도시에 존재했던 나라슈와 손스(Narashu and Sons)라는 은행 공문서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Origen ydesenvolvimiento histórico de los bancos,” in the *Enciclopedia universal ilustrada europeo-americana* [Madrid: Editorial Espasa-Calpe, 1979], 7권. 477쪽 참조). 또, 호앗킨 투리고(Joaquín Trigo)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3,300년 무렵, 우룩(Uruk)의 신전이 다른 도시에게서 빼앗은 땅을 소유하고 공물과 기탁물을 받고 농부와 상인들에게 가축과 곡식을 대부 형태로 빌려주는 역사상 첫 은행이었다. 대영박물관에는 에지비 손즈(Sons of Egibi) 은행의 금융업무를 기록한 점토판이 있다. 일련의 점토판을 보건데, 이 은행이 앗시리아 시대부터 180년 이상을 진정한 금융 왕조의 통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함무라비 법전은 재산권 양도를 활성화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권리들과 상업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이자율을 제한하고 국채를 12.5%로 설정하기까지 했다. 동업 계약 역시 규제하면서 사업내역을 기록하게 하였다. 인도의 마누 법전 역시 은행 금융 업무에 대해 언급한다. 한마디로, 현재 남아있는 기록들로 보건데, 금융업은 기원전 2300년에서 2100년 사이에 일어났고, 기원전 730년에서 540년 사이에 “은행” 사업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는데, 앗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 왕조가 안전한 무역을 확보해서 전문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했던 때였다. 은행 활동은 이집트에까지 퍼졌다가 나중에 거기서 고대 그리스 세계로 옮겨갔다. (Joaquín Trigo Portela, “Historia de la banca,” *Enciclopedia práctica de la banca*, 제 3장 (Barcelona: Editorial Planeta, 1989), Vol.6, 234–37쪽).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예금 보관의 기존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똑같이 실패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후 불행히도 역시 똑같은 치명적 결과가 가차 없이 뒤따르는데,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까지도 반복해서 되풀이되어 오고 있다. 이제부터 역사를 통틀어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온 법 원칙의 침해 및 은행 사기와 악폐에 관여했던 정부당국의 공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은행

고대 그리스에서 신전은 은행의 기능을 하여 개인과 군주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종교적인 이유로 신전은 침범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돈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 외에도 신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사병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신전의 부는 기탁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금융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했던 그리스 신전들은 델피의 아폴로 신전, 에페수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사모스의 헤라 신전이다.

TRAPEZITEI 또는 그리스 은행가들

다행히도 그리스 시대의 은행 업무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문서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최초의,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기원전 393년 즈음의 『Trapezitica』⁴로, 이소크라테스⁵가 작성했다. 이것은 이소크라테스가 보스포러스의 왕,

⁴ 레이몽 드 루봐(Raymond de Roover)는 banker라는 현대 용어가 피렌체에서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그곳에서 banker는 banchieri 또는 tavolieri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벤치(banco)나 테이블(tavola) 뒤에 앉아 일했기 때문이다. 용어를 둘러싼 똑 같은 논리를 고대 그리스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은행가들은 trapeza나 테이블 뒤에서 일했기 때문에 trapezitei 라고 불렀다. 이것이 바로 이소크라테스의 연설 “은행 문제에 대해서”가 Trapezitica라고 알려지게 된 이유다. Raymond de Roover,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edici Bank, 1397-149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3), 15쪽을 참조하라. 스페인의 디에고 드 코바루비아스 이 레이바(Diego de Covarrubias y Leyv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폐와 맞바꾸어 환전상에게 지급되는 보상을 그리스인들은 collybus라고 불렀기에 환전상을 collybists라고 했다. 또한, trapezitei, mensularii, bankers 뿐만 아니라 nummularii와 argentarii라고도 불렀는데, 돈을 환전하는 것과 별도로 이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자신의 돈과 다른 사람의 돈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었다.

1577년, 살라망카 *Omnium operum*에서 출판된 *Veterum collatio numismatum*을 참조하라.

사티루스의 아들을 변호했던 법정 연설문이다. 왕자는 아테네 은행가인 파시오가 예금을 수탁 받아 횡령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파시오는 다른 은행가들(안티스테네스와 아케트라토스)의 해방노예로, 그는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가 나중에 그들보다 더 크게 성공했고, 그로 인해 아테네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 이소크라테스의 법정 연설에 의하면, 파시오는 기탁자의 곤경을 이용해서 자기 은행에 맡겨진 예금을 횡령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거짓말과 서류위조를 서슴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훔치고 관리를 매수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 연설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설문의 일부를 보다 상세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소크라테스는 우선 이 은행가를 고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 은행가와 거래가 증인 없이 이루어진데다 피고측은 수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다루고 있으며 직업 관계상 믿을만한 사람처럼 보이는데⁶, 하필 그런 사람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가가 특권을 방어하고 자기 행각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사회적 영향력과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롭다. 그 영향력과 권력이란 것은 그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사회적 지위를 감안해볼 때 매우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⁷

⁵ 이소크라테스는 고대 長壽者(*macróbioi*)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436-338 B.C.). 그의 인생은 평화로웠던 아테네의 페르시아 통치 말기에 시작되어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와 테베의 패권 통치를 겪고, 필립 2세가 델로스 동맹을 격파하면서 마케도니아 확장 전쟁을 끝낸 카이로네이아(Chaironeia)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 해에 죽었다. 이소크라테스의 부친 테오도로스는 중산계급 시민으로, 그가 경영했던 플루트 공장은 그에게 큰 부를 가져다 주어 아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소크라테스를 직접 가르쳤던 스승으로는 테라미네스, 고르지아스, 그리고 특히, 소크라테스가 있다. (플라톤이 쓴 파이드루스(Phaedrus)의 한 구절을 보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이소크라테스를 칭찬하며 그의 밝은 미래를 예언한다.) 이소크라테스는 로고그래퍼(Logographer)였는데, 즉,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법정 변론을 대필했다. 후에 그는 아테네에 수사학교를 열었다. 이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Juan Manuel Guzmán Hermida, "Introducción General" to *Discursos* (Madrid: Biblioteca Clásica Gredos, 1979), Vol.1, 7-43쪽을 참고하라.

⁶ 이소크라테스, "Sobre un asunto bancario," in *Discursos I*, 112쪽.

⁷ 이소크라테스 사후 2200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펜실바니아 상원의원 콘디 라구에트(Condy Raguet)도 역시 은행가의 막강한 힘을 알아차렸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은행가들이 그 힘을 이용해

이소크라테스는 여행을 계획했던 그의 고객이 아주 큰 액수의 돈을 파시오의 은행에 예금했다고 설명했다. 몇 차례의 모험으로 가득 찬 여행 끝에 이소크라테스의 고객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했을 때 파시오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돌려 줄 수 없다”고 우겼다. 공개적으로는 그러나 파시오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이소크라테스의 고객으로부터 어떤 예금도 받은 적도 없고 부채도 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은행가의 행동에 크게 놀란 고객은 자기가 다시 파시오에게 지불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 그 은행가는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고 한다.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울더니 말하기를,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결과 어쩔 수 없이 내 예금 지불을 거절하지만, 곧 돈을 돌려주도록
노력하겠으며, 내가 자기를 가없이 여겨주기를, 그래서 그의 비참한
상황을 비밀로 부쳐 자기가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 남들에게

적을 위협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탁자가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 그런 인출 행위를 방해한다는 것이었다. 콘디 라구에트는 이런 압박이 거의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결론짓고 이렇게 말한다.

주주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닌, 소신 있는 한 사람이 감히 은행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는 곧 사회의 적으로 박해 받게 될 것입니다.

1821년 4월 18일에 라구에트가 리카르도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하라. (David Ricardo, *Minor Papers on the Currency Question 1805–1823*, Jacob Hollander ed.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32), 199–201쪽.) 3세기 앞서 이와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은행가들이 기탁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장애물을 만든다고 지적하고, 그 장애물은 누구도 감히 저항할 엄두를 못 낸다고 말한다.

은행가는 당신이 돈을 인출하려 할 때 수천 가지 치욕을 준다. 인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붙들고, 기다리는데 돈을 낭비하게 하고 약세인 통화로
지불하겠노라고 위협한다. 결국 당신은 은행가가 원하는 걸 강요에 못 이겨 다
들어주게 된다. 예금을 인출할 때 감히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돈을
그대로 남겨둬 그들이 사악한 이윤을 더 거둘 수 있게 허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Instrucción de mercaderes*, 183쪽).

리샤르 칸티용(Richard Cantillon)은 자신의 에세이(*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eneral* (London: Fletcher Gyles, 1775), 425–26쪽)에서 은행가가 예금 지불을 지연시키기 위해 동원하는 일련의 트릭들을 나열한다. 끝으로, 마르크스(Marx) 또한 은행가가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키는 두려움과 숭배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G.M.Bell의 다음과 같은 반어적 표현을 인용하여 말한다.

은행가의 찌푸린 이맛살은 친구의 도덕적 연설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한다.
그가 사기죄나 최소한 거짓말을 한 죄로 의심을 살까 봐 떨지는 않을까? 그
결과 은행 용자가 제한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진 않을까? 은행가의
충고가 성직자의 그것보다 그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다. (Karl Marx, *Capital*, vol.
3: *The Process of Capitalist Production as a Whole*, Friedrich Engels, ed., Ernest
Untermann, trans. [Chicago: Charles H. Kerr and Company, 1909], 641쪽)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⁸

이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통해 보건대, 당시 그리스 은행업에서는 은행가가 보호와 보관을 목적으로 위탁 받은 돈을 고객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끔 간수하는 것이 의무였던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그 돈을 자신이 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기로 간주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은행가를 계속 신임하게 하기 위해 이런 사기 행각을 비밀로 유지하려 했다는 것과,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사기 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소크라테스의 연설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파시오에게 있어서 이것은 유리한 상황에서 특정 고객의 돈을 유용하려 했던 유일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그가 100%의 지급준비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금된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 거래에 사용했다는 것, 예금의 존재 자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 다른 “탈출구”가 없었다는 것 등이다.

이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고객에게서 들은 말로 연설을 계속한다.

나는 파시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제안에 타협하고 내 돈을 돌려줄 방법을 찾고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나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게 될 말에서 곧 아시겠지만, 그는 이 약속을 어겼지요.) 그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폰투스로 가 그곳에서 나에게 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건 가능한 이 도시에서 먼 곳으로 가서 그 계약을 숨기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곳의 그 누구도 약속의 취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며,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온 그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꾸며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시오는 합의된 내용을 부인하고 증인이었던 노예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왕자가 그에게 예금이 아닌 부채를 지고 있다는 허위 내용을 입증하려고 서류를 훔치고 위조했다. 은행가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비밀로 처리하는 관행과 대다수 예금의 비밀성으로 볼 때⁹ 증인은 없었고 이소크라테스는 어쩔 수 없이 예금주가 막대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파시오의 은행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아는 간접 증인을 택할

⁸ 이소크라테스, “Sobre un asunto bancario,” 114쪽과 117쪽.

⁹ 그리스인들은 보이는 예금(phanerà ousía)과 보이지 않는 예금(aphanés ousía)을 구분해서 사용했다. 차이는, 예금액이 기탁자가 언제나 이용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는가 보다는 (두 경우 모두 그러했겠지만), 예금 사실과 그 액수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예금을 압류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었는데, 대개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

수밖에 없었다. 이 증인들은 돈을 예금할 때 예금주가 1천 스타테르 이상의 돈을 황금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소크라테스는 판사에게 예금의 존재와 파시오가 그것을 유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무엇보다 가장 잘 확신시키는 결정적 단서로 이렇게 말했다.

[파시오는] 예금 사실을 알고 있던 노예를 내놓는 것을 항상 거부했는데, 고문 취조를 받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변명을 늘어 놓으면서 말입니다. 은행가와 계약에서 더 강한 증거가 존재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계약에 증인을 쓰지 않습니다.¹⁰

이 재판의 평결에 관한 문서 증거는 없지만 파시오가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고소인과 타협하게 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어떤 경우든, 그는 이후에 올바르게 처신했고 다시 시민들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집은 오랫동안 그의 노예였던 포르미오에게 상속되었는데, 그는 후에 파시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물려받았다.

그리스 은행가의 활동에 관한 보다 흥미 있는 정보는 바로 이 포르미오를 위해 데모스테네스가 쓴 법정 변론 연설에서 얻을 수 있다. 데모스테네스는 파시오가 죽을 당시 그가 아직 미지불 상태인 50 텔런트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11 텔런트는 은행 예금이였다”고 말한다. 정기예금이었는지 아니면 요구불예금이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은행가의 수익은 “불안정했고 주로 다른 사람의 돈에서 취했다”라고 데모스테네스는 덧붙인다. “돈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노력가로 알려진 사람이 정직하기까지 하다는 것은 매우 감탄할 만한 일”이라고 데모스테네스는 결론짓는다. 왜냐하면 “신용은 모두의 것이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은행업이란 기탁자의 믿음, 은행가의 정직함, 은행가가 언제든 기탁자의 돈을 요구불예금으로 항상 대기시켜 놓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은행가에게 빌려준 돈은 가능한 신중하고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어쨌든 그리스 은행가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항상 따랐던 건 아니었고 요구불예금의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경우가 많았음을 암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소크라테스가 『Trapezitica』에서 한 연설 내용과 포르미오를 위한 연설에서 데모스테네스가 다른 은행가들을 언급한 내용을 보면 그렇다. 데모스테네스 연설문에 나오는 다른 은행가들은 그런 행동의 결과로 나중에 파산의 운명을 맞았다. 아리스토로쿠스도 이런 경우인데,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땅을 구입해” 소유했고, 소시노무스, 티모데무스, 그 외, 파산을 겪게 된 다른 이들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러다 “돈을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갚을 때가 되자 그들은 모두 지불

¹⁰ 이소크라테스, “Sobre un asunto bancario,” 116쪽.

증지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넘겼다.”¹¹

데모스테네스는 다른 변론에서도 그리스 은행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피오도루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¹²”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기술한다. 코모라는 한 사람이

헤라클리데스 은행의 요구불예금에 일정액의 돈을 예치했는데 그 돈은 매장, 장례식, 묘비 건립 비용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죽은 자는 자신의 사망 시 상속자가 예금을 빼내어 장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불예금을 한 것이다. 은행 업무에 관련해 보다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연설문 “티모시를 상대로 한 부채에 관하여,”에서 데모스테네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은행가는 지불한 금액과 예치한 금액의 목록을 작성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불된 액수와 아직 예금 상태인 금액이 기록되어 나중에 결산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기원전 362년에 있었던 이 연설은 은행가들이 고객이 돈을 맡기고 찾는 상황을 장부로 만들어 관리했음을 처음 문서로 알린 기록이다.¹⁴ 데모스테네스는 또한 당좌예금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런 종류의 예금의 경우, 은행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돈을 지불했다.¹⁵ 이 재판에서 데모스테네스는 법적 증거로,

은행 장부를 제출하게 하고, 그 복사본을 만들어 프라시에리데스에게 보여주어 검사하게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빌렸는지 적게 하였다.¹⁶

마침내, 데모스테네스는 변론을 마치면서, 은행 파산이 얼마나 흔한 일인가와

¹¹ 데모스테네스, *Discursos privados I*, *Biblioteca Clásica Gredos* (Madrid: Editorial Gredos, 1983), 157–80쪽. 본문에 인용된 구절은 162, 164, 176쪽에 나온다. 그리스 은행 파산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코헨(Edward E. Cohen), *Athenian Economy and Society: A Banking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215–24쪽을 참조하라. 하지만 코헨은 은행의 신용확장이 어떻게 은행의 지불 능력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¹² 데모스테네스, *Discursos privados II*, *Biblioteca Clásica Gredos* (Madrid: Editorial Gredos, 1983), 79–98쪽. 본문에 인용된 구절은 86쪽에 나온다.

¹³ 같은 책, 99–120쪽. 인용된 구절은 102쪽에 나온다.

¹⁴ G.J. Costouros, “Development of Banking and Related Book-Keeping Techniques in Ancient Greece,” *International Journal of Accounting* 7, no. 2 (1973): 75–81.

¹⁵ 데모스테네스, *Discursos privados II*, 119쪽.

¹⁶ 같은 책, 112쪽.

파산한 은행가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분개한다는 사실들을 언급한다. 그가 엉뚱하게도 은행 파산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곤경에 빠져 대출을 요구하고 자신의 명성이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지만, 일단 경제적으로 희생하게 되면 돈을 되갚기는커녕 사기를 치려고 드는 사람들이다.¹⁷

우리는 데모스테네스의 말을 그가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행한 법정 연설의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 연설문의 목적은 엄밀히 말하자면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는 티모시를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다. 대부분의 은행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가, 은행이 요구불예금을 보호하는데 실패하여 대중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예금을 찾으려 할 때는 막상 남아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고 분개할 때까지, 은행이 예금을 개인용으로 사용 하거나 개인사업을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다방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스 은행가들은 요구불예금에 대해 100%의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요구불예금에 이자를 지불한 흔적이 없었으며, 아테네에서 은행은 대출하지 않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¹⁸ 고객들은 안전을 이유로

¹⁷ 같은 책, 120쪽.

¹⁸ Stephen C. Todd는 아테네 은행업에 관해서 이렇게 단언한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곳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입증된 수백 건의 대출 가운데 오직 11개만이 은행가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게다가 예금자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S.C. Todd, *The Shape of Athenian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93), 251쪽)

보가에르트(Bogaert)는 은행가가 요구불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보호와 보관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확인해준다.

Les dépôts de paiement pouvaient donc avoir différentes formes. Ce qu'ils ont en commun est l'absence d'intérêts. Dans aucun des cas précités nous n'en avons trouvé des traces. Il est même possible que certains banquiers aient demandé une commission pour la tenue de comptes de depot ou pour "l'exécution des mandats."
(Raymond Bogaert, *Banques et banquiers dans les cités grecques* [Leyden, Holland: A.W.Sijthoff, 1968], 336쪽)

보가에르트는 또한 아테네의 은행가들 중 그 누구도 부분지급준비율을 유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Nous ne possédons malheureusement aucune indication concernant l'encaisse d'une banque antique," 364쪽). 하지만 우리는 Pison을 포함한 많은 은행가들이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100%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고객에게 예금을 지불할 수 없었고 파산했다.

예금을 하고, 은행가가 안전한 보관을 보장하고 쉽게 문서화한 출납 서비스와 제3자에 대한 지불 업무까지 제공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합법적 은행업의 기본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유용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걸 막지는 못했고, 사람들이 은행을 믿는 한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사기 행각도 결국은 파산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다양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보편적 법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지급준비라는 은행들의 사기성 행위는 실제 예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용확장¹⁹을 초래하고, 그것이 가짜 인플레이션 경제 붐을 이끌며, 결국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로 후퇴해 버려, 은행들은 예외 없이 파산하게 된다.

레이먼드 보가에르트(Raymond Bogaert)는 고대 그리스에서 은행업에 악영향을 끼쳤던 주기적인 위기들, 특히 기원전 377-376년과 371년의 경제 금융 불황을 언급한다. 그 시기 동안 여러 은행들 중에서도 특히 유명했던 티모데무스, 소사이노무스, 아리스토틀로스 은행들이 파산했다. 비록 스파르타의 공격과 테베의 승리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그러한 불황들은 분명히 사기성 짙은 은행들이 핵심 역할을 했던 신용확장이 일어난 후에 뒤이어 수면위로 떠올랐던 것이다.²⁰ 기록에 의하면 미트리다테스에 항거하여 반란이 일어난 후에 에페수스에서 심각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이 위기로 인해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특권을 은행업계에 허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금 반환에 10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었다.²¹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은행의 사기 행위는 그것이 발각되지 않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았다". 예를 들어, 파시오의 수입은 100 미나, 또는 1과 3분의 2 텔런트에 달했는데, 트리고 포르텔라(Trigo Portela)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황금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이 숫자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할 때 거의 일년에 2백만 달러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지 최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고 하루에 겨우 한 끼 식사로 시리얼과 채소만 먹고 지내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다. 죽을 당시 파시오의 재산은 60 텔런트에 달했다. 금의 항구적인 가치를 감안해 볼 때 이 액수는 거의 4천 4백만 달러에 이른다.²²

¹⁹ 아테네의 통화 공급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과 은행 부채("deposits")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통화 공급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 대부의 양과 속도, trapezai에 즉각적이고 궁극적으로 재입금되는 대부 자금의 비율, 예금의 기간과 변동성에 달려 있다. (Cohen, *Athenian Economy and Society*, 13쪽)

²⁰ Bogaert, *Banques et banquiers dans les cités grecques*, 391-93쪽.

²¹ 같은 책, 391쪽.

²² Trigo Portela, "Historia de la banca," 238쪽. 레이먼드 보가에르트는 이와 대조적으로 죽을 직전 파시오의 일년 수입이 그보다 몇 배 많은 9텔런트였다고 추정한다.

헬레니즘 세계의 은행

헬레니즘 시대, 특히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이집트는 은행 역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였다. 그때 역사상 최초의 정부 은행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민간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거두는지 곧 깨달았다. 그래서 은행의 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을 세움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은행업에 뛰어들어 직접 이익을 챙기기로 결심했다.

은행업을 정부가 완전히 독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스인들이 경영했던 민간 은행들은 여전히 계속 운영됐지만, 국유은행의 활동은 이집트의 번영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로스토프제프(Rostovtzeff)의 주장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 은행은 정교한 회계 시스템도 발전시켰다

잘 정의된 전문 용어를 바탕으로 세련된 회계 시스템이 4세기 아테네의 비교적 원시적이었던 회계 시스템을 대체했다.²³

일부 인류학 논문을 보면 헬레니즘 시대의 이집트에서 은행은 매우 보편적인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테브투니스(Tebtunis)에서 발견된 한 불완전한 문서에는 헤라클레오폴리스의 지방에 있던 어느 농촌 은행의 매일의 회계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통 농부들을 포함해서 예상외로 꽤 많은 수의 마을 사람들이 은행을 통해 사업을 하고 예금과 은행 계좌에서 돈을 지불하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교적 부유한 사람은 드물었고 대부분 은행 고객들은 소매업자와 토박이 장인, 아마 직물 장삿꾼, 직물공, 재단사, 은세공인과 댐장이들이었다. 고대 이집트 전통에 따라 부채는 금괴와 은괴로 지불했다. 도살업자와 다수의 여관주인 외에도 곡물, 기름, 가축 상인들이 은행의 고객으로 기록되어 있다. 프톨레마이오스 정부 은행, 민간 은행, 그리고 신전은 모두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예금을 보관했다. 로스토프제프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은행들은 요구불예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정기 예금을 모두 수용했다. 후자의 경우, 이론적으로 볼 때 투자된 곳은,

Cela donne en tout pour environ 9 talents de revenus annuels. On comprend que le banquier ait pu constituer en peu d'années un important patrimoine, faire des dons généreux à la cité et faire les frais de cinq triérchies. (Bogaert, *Banques et banquiers dans les cités grecques*, p. 367 and also Cohen, *Athenian Economy and Society*, 67쪽)

²³ Michael Rostovtzeff,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Hellenistic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Vol.1, 405쪽

다양한 종류의 여신업무들 즉, 근저당 대부, 저당 대부, 모기지, 그리고 아주 특별하고 유명한 형태였던 선박 저당 대부였다.²⁴

민간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을 보관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돈을 정부 은행에 예치하기도 했다.

이집트 시대 은행의 주요 혁신은 집중화다. 알렉산드리아에 국가의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대부분 주요 도시와 마을에는 지사를 보유했다. 민간 은행들은 국가 경제에서 2차적 역할을 했다. 로스토프제프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세수입을 관장하고 일반 고객에게서 사적 자금과 예금을 받아 남은 자금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기도 했다. 그런즉, 이때 부분지급준비 제도가 사용되고 은행의 막대한 수익이 프톨레마이어스 일가에 의해 유용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제노(Zeno)의 편지들은 은행이 어떻게 고객의 돈을 받아 그것을 예금형태로 보관했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 편지들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중앙은행의 행장이었던 아플로니우스가 황실 은행의 여러 지사에 개인적으로 예금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일반 개인들이 예금뿐만 아니라 지불 용도로도 은행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덧붙여서, 고도로 발달된 회계 시스템 덕분에 은행을 통해 부채를 지불하는 일이 매우 편리해졌는데, 그와 관련된 공식적인 거래 기록들이 남아 있으며 이것은 소송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법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은행 시스템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보다 오래 살아남았고 로마 통치기에도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사실, 프톨레마이오스식 집중화된 은행 시스템은 로마 제국에 얼마간의 큰 영향을 끼쳤는데, 흥미롭게도 디오 카시우스(Dio Cassius)는 그의 유명한 마에케나스(Maecenas) 연설에서 합리적인 이율로 모든 이에게, 특히 지주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로마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앙은행이 국가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에서 자본을 끌어 올 수 있다고 믿었지만²⁵, 디오 카시우스의 제안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로마 시대의 은행

이소크라테스나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에 필적할만한 라틴 연설가가 없었기에 로마 은행들에 대해선 그리스 시대 은행들만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문서가 많지 않다.

²⁴ Michael Rostovtzeff,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Hellenistic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Vol.2, 1279쪽.

²⁵ 같은 책, 623쪽.

하지만 로마법을 통해 은행업무와 금전적 불규칙기탁이 고도로 발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미 제1장에서 로마 법학자들이 이 분야에 제공한 각종 규제들을 살펴본 바 있다. 실제로, 로마 argentarii(은행)는 마음대로 tantundem을 사용할 수 없었고, 최대한 성실하게 그것을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요구불 예금은 이자가 붙지 않았고 대출되지 않았다. 물론, 이 때도 기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이 돈을 지불하게끔 할 수는 있었다. 마찬가지로, 은행가는 정기 “예금”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은행이나 소비대차 계약에 대출해 주는 것이다. 동의된 계약 기간 동안 적당하다고 간주되는 자금을 은행가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자를 지급했다. 이런 관행은 기원전 350년 플라우투스의 『포로(Captivi)』, 『엉덩이(Asinaria)』와 『모스텔라리아(Mostellaria)』, 그리고 테렌티우스의 『포르미오(Phormia)』와 같은 희극에서 일찌감치 언급되었는데, 그런 희극 작품에서 우리는 청산, 계정잔고, 수표 사용법 등의 금융거래를 묘사하는 유쾌한 대화들을 엿볼 수 있다.²⁶ 어쨌든 전문 법학자가 해낸 일이 로마 은행을 보다 더 잘 규제했고, 적어도 무엇이 합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가에 대해 보다 명료한 개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가가 정직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돈을 유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었다. 실제로, 하드리아누스(Hadrianus) 황제는 은행가들의 불법적인 부당한 요구들과 보편화된 부정직함에 대해 불평하는 페르가뭄(Pergamum) 상인들에게 답서를 내리기도 했다. 또한, 밀라사(Mylasa)시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황제에게 보낸 문서에는 지방 은행들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시 의회와 시민들이 만든 법령이 들어 있다.²⁷ 이런 모든 기록들로 볼 때, 비록 헬레니즘 시대보다 좀 덜하긴 했어도 실제로는 기탁자의 예금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결과적으로 파산에 이른 부도덕한 은행가들은 이때도 존재했다.

갈리스토 1세의 은행 파산

부정직한 은행의 흥미 있는 한 예로, 교황이자 성인(서기 217 - 222)이었던 갈리스토 1세의 은행이 있다. 그는 기독교인 카르포포로스의 노예로 있을 때 주인 이름으로 은행가로 활동하며 다른 기독교인들의 예금을 맡았다. 그러나 후에 그는 파산하고 도망치려 하다가 주인에게 붙잡혔다. 그는 자신이 속였던 같은 기독교인들의

²⁶ 예를 들어, 플라우투스의 *포로(Captivi)*에는 이런 말이 있다: “Subducam ratunculam quantillum argenti mihi apud trapezitam sied” (“내가 은행에 가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은행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 Knut Wicksell은 이것을 자신의 저서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에서 인용한다. (London: Routledge and-Kegan Paul, 1935), Vol.2, 73쪽.

²⁷ Trigo Portela, “Historia de la banca,” 239쪽.

청원에 의해 결국은 사면되었다.²⁸

1844년 아토스산에 있는 수도원에서 발견된 『모든 이단 문제에 대한 논박(Refutatio omnium haeresium)』은 히폴리투스가 쓴 작품으로, 갈리스토 은행의 파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²⁹ 그리스에 만연하며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경제 위기처럼 갈리스토의 파산은,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증가에 이어 발생한 심각한 신뢰의 위기, 화폐가치 하락, 다수의 금융 및 영리 회사의 도산에 뒤이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은 콤모두스 황제 치하였던 185년과 1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히폴리투스는 갈리스토가 기독교인 카르포포로스의 노예로 있으면서 어떻게 주인의 이름으로 은행업을 시작했고 주로 과부와 기독교인들에게서 돈을 끌어 모았는가를 설명한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영향력과 수에서 점점 증가추세에 있었다. 갈리스토는 영악하게도 은행을 통해 모은 돈을 유용했고 기탁자의 예금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자 바다를 통해 도주하려다가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했다. 몇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그는 태형을 당하고 사르디니아 광산에서 중노동을 하도록 판결 받았다. 나중에 그는 콤모두스 황제의 애첩이자 기독교인이기도 했던 마르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30년 후, 자유인이 된 그는 217년에 17대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서기 222년 10월 14일에 일어난 대중 폭동 때 이교도들에 의해 우물 속으로 던져져 순교자로 죽었다.³⁰

이제 어째서 사도헌장의 교황들조차 은행가들에게 정직하라, 많은 유혹에 견디라고 꾸짖는지 이해가 된다.³¹ 은행가에게 유혹에 맞서라는 도덕적 훈계와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권고는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상 다반사였으며 일부는 심지어 그 시작을 성경에서 찾기까지 한다.

²⁸ 은행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실제로 교황이 되고 나중에는 성인이 되었다는 비범한 사실 덕분에 갈리스토 1세가 수호성인의 훌륭한 사례로 여길 수 있을 지 모른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동료 기독교인들의 선량한 믿음을 악용했던 실패한 은행가의 나쁜 본보기가 되었다. 대신, 은행가들의 수호성인은 밀란의 대주교였던 성 카를로 보르메오(1538-1584)이다. 그는 지오반니 안젤로 메디치(피오 교황 4세)의 조카이자 행정 관리자였다. 그를 기리는 축일은 11월 4일이다.

²⁹ Hippolytus, *Hippolytus Wercke*, Vol.2: *Refutatio omnium haeresium* (Leipzig: P. Wendland), 1916.

³⁰ Juan de Churruca, "La quiebra de la banca del cristiano Calisto (c.a. 185-190)," *Seminarios complutenses de derecho romano*, February-May 1991 (Madrid, 1992), 61-86쪽.

³¹ "Ginesthe trapezitai dókimoi" ("은행가여, 정직하라!"). *Enciclopedia universal ilustrada europeo-americana* 중 "Orígenes y movimiento histórico de los bancos," 참조(Madrid: Espasa Calpe, 1973), Vol.7, 478쪽.

Societates Argentariae

은행가협회, 또는 Societates Argentariae는 로마 시대 은행의 한 특징이었다. 회원들에게서 차출한 금융 기부금으로 이 조직을 만드는 데 드는 자본금을 조달했고 이 자본금으로 부채도 지불했다. 그러나 은행은 특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은 은행가협회의 회원들이 반드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라도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도록 강제했다.³² 따라서 그 회원에 대한 무한 공동 책임은 로마법의 원칙이 되어 그들의 부정을 저지하고, 만일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폐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금자의 예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³³

³² Manuel J. García-Garrido, *Studi in honore di Arnaldo Biscardi* 중 “La sociedad de los banqueros (societas argentaria),” (Milan 1988), Vol.3, 특히 380–83쪽을 참고하라. 로마법에서 은행가협회 회원들의 무한책임이 확립되었던바, 이에 관한 증거는 앞서 말한 율피안의 문서(*법률요람*, 16, 3, 7, 2–3)와 파피니안의 구절(*법률요람*, 16, 3, 8)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사기를 저지른 은행가가 부채를 갚으려면 그 돈은 “은행가의 자산들 중 예금된 자금뿐만 아니라 사기꾼의 모든 자산에서도 징수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Cuerpo de derecho civil romano*, vol. 1, p. 837). 일부 현대 작가들도 자금을 보다 신중하게 운용하라는 하나의 장려책의 일환으로 이런 은행가의 무한책임 원칙으로 회귀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완전한 지불능력을 갖춘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 요건은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100% 지불 요건이야말로 은행 위기와 경기 후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기에 이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은행 주주들이 아무리 무한책임의식을 지녔다 해도 부분지급준비율이 사용된다면 은행 위기와 경기 후퇴는 여전히 궁극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충분하지도 않은 것이다.

³³ 로마 제국에서는 일부 크고 영향력 있는 신전들이 계속해서 은행 역할을 했다. 그 중에는 델로스, 델피, 사르디스(아르테미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신전이 있다. 예루살렘 신전은 가난하고 부유한 모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돈을 예금하던 곳이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신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 신전에서 예수가 환전상들을 쫓아냈던 행위를 해석해야 한다. 마태복음 21:12–16에 보면 예수는 신전에 들어서자마자

환전상들의 테이블과 비둘기를 팔던 벤치들을 뒤엎는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한다,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 11:15–17에도 거의 이와 동일한 기록이 나온다. 요한복음 2:14–16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데, 성전 뜰에 들어선 후 예수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셨다.

(새국제성경). 성경 구절의 번역은 그다지 정확하지 못하다. 동일한 실수가 García del Corral의 *Digest* 번역에서도 나타난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란 표현대신 “은행가들”이라고 읽는 편이 라틴어역(譯) 불가타版 성서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더 일치한다. 거기서 마태 부분은 이렇게 쓰여있다.

이들 로마의 은행가 *argentarii*들은 *taverna*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서 사업을 했다. 그들의 장부에는 고객들의 당좌예금계좌의 대차(貸借)가 기록되었다. 로마 시대 은행 장부는 법정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회계 장부를 어떻게 낱짜 별로 관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editio rationum*(정산서:精算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했다.³⁴ 은행가는 또한 *mensarii*라고도 불렸는데, 그것은 그들이 원래 환전 업무를 수행했던 카운터인 *mensa*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오늘날의 은행업 허가증과 매우 유사하게 *mensa*는 양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국가가 은행업무를 행하는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양도되는 것은 정부가 부여한 영업권이었다. 이 양도에는 *taverna*의 금융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가구와 도구 일체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은행가들은 길드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공통의 이익을 수호하고 황제들,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게서 중요한 특권을 얻어냈다. 이런 특권들 중 일부는 로마법대전(*Corpus Juris Civilis*)에 나와 있다.³⁵

로마 제국의 사회·경제적 와해는 화폐를 평가 절하했던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과 생활 필수품의 최고 가격 설정의 결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거꾸로 생필품을 부족하게 만들고 제국의 서로 다른 지역 간 무역이 사라지고 상인들이 재정적으로

Et intravit Iesus in templum et eiciebat omnes vendentes et ementes in templo, et *mensas numulariorum*, et cathedras vendentium columbas evertit: et dicit eis: Scriptum est: Domus mea domus orationis vocabitur: vos autem fecistis illam speluncam latronum. (*Biblia Sacra iuxta Vulgatam Clementinam*, Alberto Colunga and Laurencio Turrado, eds.

(Madrid: Biblioteca de Autores Cristianos, 1994), Mateo 21:12-13, p. 982)

이 복음서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난하거나 부자인 모든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예금을 하던 곳이었음을 확인해준다. 예수의 성전 청소는 불법 행위에서 파생된 악폐(예금된 돈의 횡령이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풀이될 수 있다. 덧붙여서, 성경에 언급된 이러한 내용들은 은행가와 정부 관료 사이에 이미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예증하는데, 대체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행동에 극도의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는 은행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히브리인 Rostovtzeff의 저서 *The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Roman Empire*, Vol.2, 622쪽을 참고한다.

³⁴ Jean Imbert의 저서, *Historia económica (de los orígenes a 1789)*, Armando Sáez의 스페인 번역본 (Barcelona: Editorial Vicens-Vives, 1971), 58쪽에 따르면,

*praescriptio*는 오늘날 수표와 동등한 개념이었다. 자본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가에게 용자 상환을 지시하면, *praescriptio*라고 불리는 “은행도 어음(bank draft)”이 제시되는 즉시 은행가는 그 용자 상환을 하게 된다.

³⁵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제정하여 *Novellae*에 포함시킨 “은행 거래”에 대한 새 헌법 126, 칙령 7(은행 거래에 관한 칙령 및 규정들)과 칙령 9, “은행 거래에 대하여”를 참조한다. (*Cuerpo de derecho civil romano*, Vol.6, 479-83, 539-44, 547-51쪽 참조).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또한 은행의 종말이기도 했다. 뒤이은 3세기와 4세기의 경제 위기 동안 대부분의 은행이 파산했다. 제국의 사회·경제적 붕괴를 막으려는 시도로 강압적이고 간섭주의적인 조치가 추가적으로 취해졌지만, 이는 붕괴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수 년 동안 로마 군단이 국경선 밖으로 꾸준히 저지시켜 왔던 야만인들이 예전의 번영했던 로마 제국을 완전히 파괴하고 정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고대 로마 세계의 멸망으로 기나긴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고, 거의 800년이 흘러서야 중세 시대 말기의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은행이 다시 나타난다.³⁶

3. 중세 후반의 은행가

로마 제국의 멸망은 대부분 무역활동의 소멸과 사회·경제적 관계의 봉건화를 의미했다. 무역활동과 분업의 대규모 감소는 금융업, 특히 은행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감소의 영향은 수 세기간 지속되었다. 사회·경제적 발달의 안전한 중심지였던 수도원만이 경제 자원의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템플 기사단이 이 영역에서 했던 활동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그들은 원래 순례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1119년, 예루살렘에서 출범했다. 템플 기사단은 군사적 약탈로 손에 넣거나 봉건 왕자와 영주들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막대한 금융 자원을 갖고 있었다. 9천개 이상의 활동 거점과 두 개의 본부를 가질 정도로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고 군사 종교 조직이었던 관계로, 템플 기사단은 예금에 관한 한 안전한 관리인인 동시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된 위대한 도덕적 권위도 함께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일반 시민으로부터 일반 기탁과 불규칙기탁을 맡게 되어 그 보관 수수료를 버는 한편, 재물을 운송해주고 그 수송 비용과 보호료 등의 수입으로 부를 얻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원을 빌려주고 요구불예금의 보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기사단은 점점 더 번영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질투를 불러 일으켰고 마침내 프랑스크왕 필립 4세는 기사단을 해체하기로 결심한다. 왕은 기사단 책임자들을 화형에 처하라고 판결했는데 여기에는 수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이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위의 주요 목적은 기사단이 소유했던 모든 부를 빼앗는 데 있었다.³⁷

³⁶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에 대한 대단히 훌륭한 개요가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저서, *인간 행동 (Human Action): A Treatise on Economics*, Scholar's Edition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8), 161-63쪽에 나와 있다. 우리는 앞으로, 보다 널리 알려진 미제스의 *인간 행동* 제3판 (Chicago: Henry Regnery, 1966), 767-69쪽도 인용할 예정이다.

³⁷ Jules Piquet의 저서, *Des banquiers au Moyen Age: Les Templiers, Étude de leurs opérations financiers* (Paris, 1939)를 보라. 이 책은 Henri Pirenne가 자신의 저서,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u Moyen Ag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9)의 116 및 219쪽에서 인용된 바 있고, 또한 Ignacio de la Torre도 그의 저서 *Los templarios y el origen de la banca* (Madrid: Editorial Dilema, 2004)에서

11세기가 막을 내리고 12세기가 시작될 때 어느 정도의 상업과 무역업이 아드리아 해에 위치한 이탈리아 도시들, 특히 베니스, 피사, 그리고 후에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다시 일어났다. 이 도시들은 주로 콘스탄티노플과 동양과의 무역에 주력했다. 이 도시들의 금융업의 의미 있는 성장은 은행업을 다시 부활시켰고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살펴본 패턴이 다시 반복되었다. 실제로 은행가들은 처음에는 로마에서 전래된 법 원칙을 존중했으며 요구불예금 즉, 불규칙기탁의 불법적 사용을 기피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했다. 대출로 받은 돈 즉, 정기 “예금”만이 은행가들이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것도 합의된 기간 동안만이었다.³⁸ 하지만 그들은 다시 요구불예금의 돈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은행의 폐단과 부분지급준비은행이 다시 나타나게 만들었다. 정부 관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법 원칙을 강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개의 경우 특권과 허가를 부여해 은행가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부채질하거나 대부나 세수입의 형태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그들은 심지어 Taula de Canvi 또는 바르셀로나 예금 은행,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기타 은행들과 같은 정부 은행을 설립하기까지 했다.³⁹

인용되었다. Piquet은 템플 기사단에 의해 복식 부기가 시작되고 원시적 형태의 수표가 처음 출현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템플 기사단의 계좌 거래는 기껏해야 복식 부기의 직접적인 모델이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나중에 위대한 베네치아 승려이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친구였던 Luca Pacioli가 1494년에 정식으로 만들어냈다. 피사(Pisa)의 한 은행은 1336년에 일찌감치 복식 부기를 사용했고, 제노아의 세금 징수관이었던 마사리(Masari) 가문도 1340년에 사용했다. 증거가 남겨진 가장 오래된 유럽의 회계 장부는 피렌체 은행에서 사용된 것으로 12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G.A. Lee, “The Oldest European Account Book: A Florentine Bank Ledger of 1211,” in *Accounting History: Some British Contributions*, R.H. Parker and B.S. Yamey, ed. (Oxford: Clarendon Press, 1994), 160–96쪽을 참고하라.

³⁸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초창기 예금 은행들은 할인 은행이나 대부 은행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오늘날 일부 통화주의자가 확립하고자 하듯이 100% 준비금 체제를 제공했다. 당좌 대월은 금지되었다. 실제로, 이들의 운영 기준을 맞춰 유지하기란 힘들었는데, 특히 공공 비상시국에는 더 그랬다. Taula de Valencia는 1567년에 도시를 위해 밀을 사려고 예금액을 사용할 뻔 했다. 1590년에는 도시 관료들에게 부당 대출이,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 도시 자체에 대해서도 불법 대부가 행해졌다. (Charles P. Kindleberger, *A Financial History of Western Europe*,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49쪽)

³⁹ 회교 율법은 중세기를 통틀어 은행가가 불규칙기탁의 예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는데,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러했다. 일례로 *Compendio de derecho islámico* (Risála, Fí-i-Fiqh)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책은 10세기 무렵, 스페인계 아라비아인으로 Al-Qayrawání라고 불렀던 Ibn Abí Zayd가 Jesús Riosalido의 지원으로 출판한 책이다(Madrid: Editorial Trotta, 1993). 이 책 130쪽을 보면 이런 법률 원칙이 나온다: “예금된 돈을 이용해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은 비난 받을 일이지만, 자기 돈을 사용한다면 이윤을 챙길 수 있다” (또한 214–15쪽을 보면 진정한 대부 또는 소비대차(mutuum)의 경우,

지중해 유럽의 예금 은행의 부흥

예금자를 위해 tantundem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법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지급준비 제도로 영업하는 은행이 중세 후반기에 서서히 출현한 상황을 아보트 페이슨 어셔(Abbott Payson Usher)는 그의 기념비적 저서, 『지중해 유럽의 예금 은행의 유래(The Early History of Deposit Banking in Mediterranean Europe)⁴⁰』에서 해명했다. 어셔의 주장에 따르면 13세기가 되어서야 일부 민간 은행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의 출현을 촉발했고 뒤이어 신용확장이 일어났다. 보편적으로 주장되던 의견과는 반대로 어셔는 이것이 은행 역사상 지폐발행은행의 출현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믿는다. 지폐발행은행은 17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제4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지불준비금의 뒷받침 없이 발행되는 은행권과 요구불예금의 대출은 모두 똑같은 경제 효과를 내지만, 은행업 발달은 역사적으로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의존해 왔다. 이에 대해 어셔는 이렇게 표현한다. “최근까지 지폐발행은행의 역사는 고대, 현대의 모든 예금은행의 중요성을 흐려왔다.” 같은 악영향을 끼치는 오랜 역사의 예금 은행들에 비해 경제학자들이 지폐발행은행의 문제를 중시해 온 것에 대해 그는 야유를 섞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통화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문제로 야기된 이론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은행권과 예금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오해가 싹텄다. 프랑스 외교관이 18세기 외교 위기 때 피레네산맥을 “발견”한 것처럼 은행 이론가들도 19세기 중반 예금을 “발견”해냈다.⁴¹

어셔는 거듭해서 현대의 은행 시스템이 훨씬 뒤에 나타난 지폐발행은행이 아니라 부분지급준비금은행에서 탄생했음을 강조한다. 부분지급준비금은행 자체는 은행들의 사기 행각과 정부 공모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셔가 중세기 카탈로니아 은행 시스템의 예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어셔는 20세기 제노아의 첫 번째 은행이 요구불예금과 “정기” 예금을 장부 기록에서부터 확연히 구분 짓고, 후자를 대부 또는 소비대차 계약으로 기록했음을

채권자는 합의된 기간이 종료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돈을 인출 할 수 없다. 화폐 예금에 대한 회교 율법의 개념은 로마인의 불규칙기탁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

⁴⁰ Abbott Payson Usher는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유명한 저서, *The Early History of Deposit Banking in Mediterranean Europ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3)을 집필했다.

⁴¹ 같은 책, 9와 192쪽.

지적이다.⁴² 그러나 은행가들은 이후 점차적으로 요구불예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은행 시스템에 나타나는 경제 팽창 효과를 이끌어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에서 예금을 만들어내고 신용을 준거나 마찬가지였다. 바르셀로나 예금은행이 이에 해당하는 일례다. 어서는 이 은행의 현금준비금이 전체 예금액의 29%였다고 추정한다. 이는 그들의 신용확장 능력이 현금준비금의 3.3배라는 의미다.⁴³

어서는 또한 정부 관료들이 여러 면에서 건전한 은행 활동, 특히 요구불예금에 대한 100% 지불 준비를 강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들은 결국 은행에 정부 허가(특권 - *ius privilegium*)를 내주어 부분지급준비율만 가지고도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도 어쨌든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보장해야 했다.⁴⁴ 통치자들은 언제나 사기성 은행을 이용하고 대부분 손쉬운 국가공공 재정 수단으로 삼아왔다. 은행은 기탁자들의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는 대가로, 그 돈을 정부에 지원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대출 형태로 빌려준다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 통치자들은 정부 은행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는데, 은행업에서 얻을 수

⁴² “모든 제노아 등기부에는 수령된 돈을 대부(mutuum)로 표기하는 일련의 장치가 들어 있었다.” 같은 책, 63쪽

⁴³ 부채에 비하여 이 예금 은행은 전체 예금액의 29%를 준비금으로 보유했다. 현재 어법으로 표현하자면 은행은 보유중인 준비금의 3.3배의 비율로 신용을 확장할 수 있었다. (같은 책, 181쪽)

그러나 어서가 곧이어 한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는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운영 중이던 민간 은행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지급율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가 사실일 것이다. 민간 은행들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이 시(市) 은행처럼 대중에게 그렇게 많은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또한 서로 지극히 경쟁적인 상황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현금 보유액은 훨씬 많았던 게 틀림없다 (어서의 책 181-82쪽 참조). 아무튼, 어서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초기에는 상당한 어음교환의 집중화와 신용확장이 있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자료들로 볼 때 신용 구매력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인 통계 자료의 부족으로, 중세 시대와 근대기에 있어 신용 거래의 양적 중요성을 추정할 근거는 거의 전무하다. (같은 책, 8-9쪽)

나중에 어서의 주요 논제가 사실임을 완전히 보여주는 키폴라의 책을 인용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은행 “승수 (multiplier)”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

⁴⁴ 15세기 카탈로니아에서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증금을 납부한 은행가들만이 카운터 위로 테이블보를 펼칠 자격이 주어졌다. 이 시스템 덕분에, 대중은 지불 능력을 더 갖춘 은행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같은 책, 17쪽.

있는 막대한 수익을 직접 거둬들이기 위해서였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바르셀로나 예금 은행, Taula de Canvi는 주로 이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과 "Depositum Confessatum"

중세 금융 사회에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요소가 더해진 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유대교, 회교, 천주교의 3대 종교에서 고리가 금지된 것이다. 마조리 그리스 허치슨(Marjorie Grice Hutchinson)은 중세의 이자 금지법과 그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다.⁴⁵ 허치슨은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금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이 어쩌서 적어도 중세기 전반 기독교 세계의 대부분 은행가와 금융가가 유대인이었는가를 설명해 준다.⁴⁶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은 중세 은행의 영업 활동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많은 이론가들이 주장하듯이) 유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은행가들이 대출 이자 지불을 위장할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해서는 아니었다. 은행이 고객에게 빌린 돈을 (달리 말해, 정기에금을) 대출해줄 때, 은행은 진정한 의미의 금융 중개인의 역할을 했으며 확실히 합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그 시대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교회가 이자의 합법성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해서 교회가 은행업을 전체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은행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대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준 것뿐이다. 즉, 단순한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자에 관한 교회의 관점 변화가 결코 부분지급준비금은행, 즉, 사리사욕을 위한 은행의 요구불예금 이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⁴⁷

⁴⁵ Marjorie Grice-Hutchinson, *Early Economic Thought in Spain 1177-1740*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8). "In Concealment of Usury," 제1장, 13-60쪽 참조.

⁴⁶ 13세기까지, 금융 활동의 상당 부분은 유대인과 주로 근동지역에서 옮겨 온 비기독교인들의 차지였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무신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 받을 수 없었고, 교회의 경제적 금지조치도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그런 금리에 분개하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유대인을 중요하기 시작한 반면, 그들보다 덜 분개했던 전제군주와 왕자들은 이 상대적으로 무력한 집단에게서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Harry Elmer Barnes, *An Economic History of the Western Worl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0], 192-93쪽)

⁴⁷ 이것은 정확히 Bernard W. Dempsey S.J. 신부의 의견으로, 그의 주목할 만한 저서, *Interest and*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개념상의 혼란은 대부분 교회의 이자 금지령의 결과로 중세에 처음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이자가 지불되는 대출을 숨기기 위해 은행이 고안해낸 주요 책략 가운데 하나⁴⁸는, 그것을 요구불예금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제1장에서 다뤘던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 이 거래에 관련해 로마법대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이드라인은, 만약 보관인이 요구불예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는 착복 죄뿐만 아니라 예금 반환에 지연되는 기간만큼 기탁자에게 이자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Digest, 16, 3, 25, 1). 이런 이유로, 중세기 전체를 통틀어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은행가와 “기탁자”가 실제로는 대출이나 소비대차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을 맺었다고 선언했다는 것은 전혀 놀랄 게 없다. 이런 선언이 대출을 법적으로 은폐하는 하나의 수법으로 *depositum confessatum*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양측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금이 아닌, 대출 또는 소비대차 계약인 모의(模擬) 예금이었다. 서로 합의한 기간이 끝날 때쯤엔 기탁자로 가장한 사람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예금 보관인이 그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는 “지연”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대해 이자의 형태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대출로 인해 이자가 지불되었다는 실제 사실은 숨겨진다. 대출을 예금으로 위장하는 방법은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을 교묘하게 피하고, 엄격한 세속적이고 영적인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depositum confessatum*은 결과적으로 금전의 불규칙기탁에 대한 법률주의를 왜곡시켰으며, 고대 로마에게서 물려받은 법 원칙의 명료하고 순수한 성질이 오염되고 큰 혼란이 더해져 현대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사실, 이자가 포함된 대출에 관해 전문가 학설의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엄격하게 반대하든, 아니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Usury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f Public Affairs, 1943)에 따르면, 우리가 이자를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은 “제도적 고리대금업”이며, 특히 사회에 유해한데 왜냐하면, 가짜 호황, 은행 위기, 경기후퇴를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228쪽).

⁴⁸ 대부와 이자를 조직적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사용된 트릭들의 간결 명료한 목록은 앙베르(Imbert), *Historia económica (de los orígenes a 1789)*, 157-58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앙베르가 말하는 이자가 있는 대부를 숨기는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a) 허위 계약 (환매 계약이나 부동산 보증서); (b) 위약 조항(이자를 경제적 제재로 위장함); (c) 대부 금액을 속임(채무자는 실제 대부보다 더 높은 총액을 갚기로 동의함); (d) 외국환거래(이자를 추가 비용으로 포함시킴); (e) 소득 또는 연금 보험(종신 연금 보험에는 이자와 원리금상환의 몫이 모두 들어있음). 장 앙베르는 이자를 정당화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었던 *depositum confessatum*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약 조항”의 범주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위험한 이자”를 숨기기 위해 사용된 “최고의 기발한 재주”에 대해선 Henri Pirenne의 의견을 참고하라.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Medieval Europe*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and Company, 1947), 140쪽.

동의하든), *depositum confessatum*에 대한 서로 다른 접근방법들 때문에 이론가들은 금전의 불규칙기탁과 소비대차 계약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한편으로는, 감춰진 대출 거래와 이자를 모두 들춰내 비난하기로 작정한 교회법 학자는 기탁 계약과 소비대차 계약을 동일시해버렸다. 그들은 모든 예금 거래 뒤에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출 거래를 들춰냄으로써 *depositum confessatum*의 사기 행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이 실수를 범한 곳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예금들, 심지어 동일한 양과 질의 물품(*tantundem*)을 보호하고 기탁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한다는 극히 중요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질적인 기탁조차 *deposita confessata*로 간주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출과 이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다른 학자들은 법률요람(*the Digest*)에서 구체화된 원칙에 따라 이자 지불을 정당화했던 *depositum confessatum*을 일종의 불안정한 대출이라고 옹호했다.

이 두 가지 교리적 입장의 결과, 학자들은 금전의 불규칙기탁의 “불규칙성(*irregularity*)”이 대체가능물의 기탁이 아니라 대출을 기탁으로 위장하는 불규칙을 말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⁴⁹ 또한 *depositum confessatum*을 이용해 대출 거래를 예금 거래로 위장해 불법적인 이자 지불을 정당화했던 은행가들도 결국, 예금이 항상 대출을 숨긴다는 학설이 자신들에게 매우 큰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는데, 이

⁴⁹ 교회법 학자가 금전의 불규칙기탁과 소비대차 또는 대부 계약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두 계약에서 공통적인 법률적 특징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곧 대체가능물 기탁에서 맡겨진 것의 개별 단위의 “소유권”이 “양도”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수탁자는 동일한 양과 질의 물품(*tantundem*)을 보호 및 관리하고, 기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반환할 의무만 지기 때문이다. 이 소유권의 양도는 대부나 소비대차 계약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리고, 둘 다 모두 기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양도”되므로 학자들은 자동적으로 모든 금전의 불규칙기탁이 대부라고 추정했다. 이런 이유로, 이론가들은 금전의 불규칙기탁과 소비대차 또는 대부 간의 본질적 차이점(제1장 참조)을 간과했다. 불규칙기탁의 주요 목적은 기탁물의 보호와 보관이고, “소유권”이 어떤 의미에선 “양도”될 수 있지만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은 아니었으며, *tantundem*은 반드시 기탁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보관되어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는 소유권과는 별개 문제로 전면적인 이용가능성의 양도가 필수였다(실제로, 현재의 재화는 미래의 재화로 대체 가능하다). 이 외에, 여기에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 포함되는데, 그건 바로 기한이다. 약정된 기한 동안 채권자는 재화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불규칙기탁에는 이런 기한 조건이 없다. 요약하자면,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이 *depositum confessatum*이라는 사기성 질고 걸로만 그럴싸한 제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금전의 불규칙기탁과 소비대차 계약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혼란은 1342년의 *Isabetta Querini vs. The Bank of Marino Vendelino* 사건에 대한 잘못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Reinhold C. Mueller in *The Venetian Money Market: Banks, Panics, and the Public Debt, 1200–1500*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12–13쪽에서 언급되고 있다.

학설을 이용하면 실제로 요구불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돈을 착복하는 행위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은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에 관한 로마 법학자들의 명료하고 합법적인 정의를 모호하게 흐리게 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사기성 은행업무와 요구불예금의 착복을 합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뒤따르는 혼란을 이용했다. 19세기 말이 될 때까지 전문가들도 이런 결과로 일어난 법적 혼란을 없애는 데 실패했다.⁵⁰

중세 은행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세 종류의 특별한 사례를 살펴보자. 14세기의 피렌체 은행, 15세기와 그 이후의 바르셀로나 예금 은행인 Taula de Canvi와, 메디치 은행이 그것이다. 이 은행들은 중세 후반의 대부분 중요한 기타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줄곧 그리스와 로마에서 목격되었던 은행들과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다. 즉, 처음에는 로마법대전의 전통적 법 원칙을 지키면서 기탁자에게 언제나 반환이 가능하도록 tantundem의 보호와 보관을 보장하는 100%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기능했다. 그러다가 은행가의 탐욕과 통치자의 결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원칙들은 서서히 위반되기 시작했고, 은행가들은 요구불예금에서 돈을 인출해 실제로 종종 통치자들에게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것은 부분지급준비금은행과 거짓된 신용확장의 출현을 부추겼는데, 이런 현상들이 초기에는 경제 성장의 강한 동력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단 경기 후퇴가 일어나고 은행이 대중의 신임을 잃게 되는 순간 은행은 기탁자의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고 경제 위기와 은행 파산으로 귀결되었다.⁵¹ 또한, 은행 파산은

⁵⁰ 이미 인용한 바 있는 Pasquale Coppa-Zuccari의 저서는 금전의 불규칙기탁의 완벽한 법 원칙을 재구성하기 시작한 첫 번째 시도로, 그는 고전적 로마 학자들과 동일한 전제로 출발해 요구불예금 명령과 관련된 은행의 불법성을 다시 폭로한다. *depositum confessatum*이 법률 기관의 불규칙기탁에 대한 이론적 논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Coppa-Zuccari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le condizioni legislative dei tempi rendevano fertile il terreno in cui il seme della discordia dottrinale cadeva. Il divieto degli interessi nel *mutuo* non valeva per *deposito irregolare*. Qual meraviglia dunque se chi aveva denaro da impiegare fruttuosamente lo desse a deposito irregolare, *confessatum* se occorreva, e non a mutuo? Quel divieto degli interessi, che tanto addestrò il commercio a frodare la legge e la cui efficacia era nulla di fronte ad un mutuo dissimulato, conservò in vita questo ibrido istituto, e fece sì che il nome di *deposito* venissi imposto al mutuo, che non poteva chiamarsi col proprio nome, perchè esso avreb be importato la nullità del patto relativo agli interessi. (Coppa-Zuccari, *Il deposito irregolare*, 59–60쪽)

⁵¹ 레이몬드 보가에르트에 따르면, 증빙 문건으로 볼 때, 베니스의 알려진 163개의 은행들 중 적어도 93개 은행들이 파산했다(Bogaert, *Banques et banquiers dans les cités grecques*, 392쪽, 513번 각주 참고). 베니스의 46개 파산 은행들의 상세한 리스트에 대해서는, Mueller, *The Venetian Money Market*, 585–86쪽을 참고한다. 이와 똑같은 파산의 운명이 15세기 세비야에 있던 모든 은행들에도 닳쳤다.

시중에 화폐가 공급되는 것을 크게 위축시키고(특히, 대출과 예금 부족),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를 유발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경제학자들은 거의 5세기가 걸려서야 이 모든 과정의 이론적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다.⁵²

14세기 피렌체 은행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초에 걸쳐, 피렌체에서는 금융업이 싹터 발전하고 14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금융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 도시에서 주요 은행들을 소유했던 가문들로는, 아치아올리스(Acciaiuolis), 보나코르시스(Bonaccorsis), 안텔레시스(Antellesis), 코르시니스(Corsinis), 우자노스(Uzzanos), 페렌돌리스(Perendolis), 페루찌스(Peruzzis), 그리고 바르디스(Bardis)가 있다.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14세기 초부터 은행가들은 요구불예금으로 예치된 돈을 갈수록 일정 부분 불법적으로 유용하기 시작하고 무(無)로부터 막대한 양의 신용확장을 만들어냈다.⁵³ 그 결과 당연한 수순으로,

중앙 은행의 지원이 없던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의 조직적인 파산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Pascal Salin은 2001년 3월 30-31, Austrian Scholars Conference에 제출한 자신의 논문 “In Defense of Fractional Monetary Reserves,”에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⁵² 은행가들은 언제나 은밀하고 부끄러운 방식으로 보편적 법 원칙을 위반하고 요구불예금의 돈을 횡령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고객들 중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곧 은행이 신뢰를 잃게 되어 파산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 이것으로 어째서 은행 업무가 전통적으로 항상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된다. 금융거래의 혼란스럽고 모호한 속성과 더불어, 이러한 개방성의 부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은행가를 공개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대중들이 은행이 실제 어떤 것인가를 모르게 만든다. 겉으로는 진정한 금융기관처럼 보이지만, 은행을 단순한 무에서 대부와 예금을 만들어 내고 경제에 확장 효과를 내는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부끄럽고, 그러기에 비밀스러운 은행 업무의 이러한 속성을 Knut Wicksell은 다음과 같은 말로 숨씨 있게 정리한다.

사실상, 그리고 원래 계획과는 정반대로, 은행은 신용기관이 되어, 교환 수단의 공급을 늘리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실제 화폐의 유통 속도를 늘리기도 했다. 예금증서의 총액에 상응하는 진짜 돈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로 업무는 예전처럼 지속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은행에 돈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예금증서의 태환성에 꼭 필요한 조건이듯이, 이런 대부 거래 사실은 철저한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 만약 발각된다면 은행은 대중의 신뢰를 잃고 파멸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전대금(advances)을 상환할 입장에 있지 않을 때 그런 발각이 일어난다면 더욱 치명적이다(Wicksell,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vol. 2, 74-75쪽).

⁵³ 여러 논문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은, Reinhold C. Mueller, *The Venetian Money Market*의 5장과, 그의 “The Role of Bank Money in Venice, 1300-1500,” *Studi Veneziani* n.s. 3 (1979): 47-96쪽을 참조하라. Carlo M. Cipolla는 주목할만한 저서 *The Monetary Policy of*

신용확장의 형태로 화폐 공급이 늘어나 가짜 경제 붐을 일으키고 결국 피할 길 없는 심각한 경기 후퇴가 일어났다. 이런 경기 후퇴가 일어난 이유에는 나폴리 군주들의 막대한 자금이 인출된 것과, 영국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 피렌체 정부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것 등이 있다. 피렌체에서는 피렌체 은행이 무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투기성 용자가 국가 부채를 재정 지원했다. 보편적인 신임 위기가 일어났고 위에 언급한 은행들은 모두 1341년과 1346년 사이에 쓰러졌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런 은행들의 도산은 모든 기탁자들에게 해로운 것이었다. 은행들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나중에 예금액의 절반, 3분의 1, 또는 심지어 기껏해야 5분의 1만을 돌려 주었다.⁵⁴ 다행히도 빌라니(Villani)는 이 시기에 일어난 경제 금융 사건들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고 카를로 키폴라(Carlo M. Cipolla)가 그것을 재편집해 발행했다. 빌라니의 주장에 따르면, 경기 후퇴는 엄청난 신용대출 축소(mancamento della credenza 또는 "신용 부족")를 수반했는데, 이것이 경제 상황을 한층 악화시켜 산업체, 작업장, 사기업체들이 파산의 홍수를 이뤘다. 키폴라는 이 경기 후퇴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경제 붐, 위기, 그리고 경제 후퇴 과정을 다음과 같은 한 마디로 표현했다: "태양의 찬가는 죽음의 춤에 자리를 내주었다." 사실, 키폴라에 따르면, 계속 지속되던 이 경기 후퇴가 비로소 멈춘 때는, 극적으로 인구를 감소시켰던 흑사병의 파괴적 영향⁵⁵ "덕분에" 현금 공급과 일인당 신용통화가 경제 위기 이전 수준에 접근하고 차후 회복을 위한 토대를 놓게 되었을 때였다.⁵⁶

Fourteenth-Century Flor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13쪽에서 "그 시대의 은행들은 화폐를 만들어내고 그 유통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정도로까지 발전했다"라고 주장한다.

⁵⁴ Cipolla, *The Monetary Policy of Fourteenth-Century Florence*, 9쪽.

⁵⁵ 같은 책, 1쪽. 흑사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카치오의 해설은 John Hicks의 인용을 참조한다. *Capital and Time: A Neo-Austrian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73), 5장, 12-13쪽 각주 60번.

⁵⁶ 카를로 M. 키폴라의 역사적 사례들에 대한 해석적 분석은 다른 작가들보다 더 깊이 있는 지식과 경제 이론의 적용을 보여준다 (다른 작가들인 A.P. 어셔와 레이몽 드 루봐의 경우 중세 시대의 경기 후퇴에 놀라워했는데, 그들에게 있어 그 원인은 "불가사의하고 설명 불가능한 것이었다). 본질적으로는 통화주의자였던 그의 분석은 경기 후퇴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 후퇴를 전반적인 신용 긴축에서 발생하는 화폐 공급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놀랍게도 그는 이전의 경기 호황은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역사에 대한 "통화주의자" 해석으로 빠져들어, 뒤이어 일어나는 피할 길 없는 경기 후퇴의 진짜 근원인 신용확장이 일으키는 가짜 호황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화폐의 "부족"을 결과적으로 해결한 것이 흑사병이었다는 키폴라의 논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화폐 부족이란 자발적으로 교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인 가격 하락을 일으켜 (화폐 가치의 적절한 상승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 잔고를 많이 유지할 필요가 없게 하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인구를 감소시킬 필요도 없다. 전염병이 없더라도, 경기 호황기 동안 저질러졌던 투자 실수가 시정되면 화폐 가치의 상승과 연이은 현금 잔고의 감소로 인해 경기 쇠퇴 과정은 조만간 끝나게 된다. 이 과정이 우연의 일치로, 허나 완전 별개로 일어나 흑사병의 결과와 일치했던 것뿐이다. 키폴라처럼 최고의 교육을

메디치 은행

메디치 은행의 역사는 레이몽 드 루봐(Raymond de Roover)가 일관되게 연구해 온 주제로, 그의 연구는 피렌체의 *Archivio di Stato*에서 메디치 은행 비밀 장부(*libri segreti*)가 발견됨으로써 더욱 깊어졌다.⁵⁷ 이 장부들의 비밀성은 또다시 은행가들의 숨겨진 부끄러운 본성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은행의 수많은 고객들, 귀족, 왕자, 심지어 교황까지도 자신들의 돈을 비밀 계좌에 보관하고 싶어 하던 욕망도 들춰냈다. 이 장부가 발견된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는데, 이를 통해 15세기에 메디치 은행이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메디치 은행이 처음부터 요구불예금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겠다. 처음에는 정기 예금(regular deposit)만 받았었다. 그건 실제로 고객이 은행에 빌려주는 돈이었다. 이런 소비대차 계약은 *depositi a discrezione*라고 불렀다. *depositi a discrezione*라는 단어는 이 "예금"이 진짜 대부였기 때문에 은행은 그것을 십분 사용할 수 있었고 적어도 약정기간 동안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다.⁵⁸ *Discrezione*는 또한 고객이 정기"예금"의 형태로 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이 지불한 이자를 가리키기도 했다.

그의 저서에서 레이몽 드 루봐는 메디치 은행이 존재했던 시기 전체를 통틀어 이 은행의 발전과 모든 우여곡절을 전면적이고 상세하게 연구한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 이 은행이 요구불예금을 수용하고 그 일부를 부적절하게도 대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만 강조하면 된다. 비밀 장부(*libri segreti*)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442년 3월 회계 장부의 각 요구불예금 기입란에는 그 여백에 각 예금자가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⁵⁹

메디치 은행 런던 지부에서 보낸 1477년 11월 12일자 대차 대조표는 의미심장한 액수의 은행 부채가 요구불예금의 그것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레이몽 드 루봐는 어떤

받고 통찰력이 뛰어난 역사학자라도 적절한 이론적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해석에 있어 편파적인 판단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어쨌든, 역사에 대한 인플레이션적 해석 옹호자들은 여전히 전쟁과 전염병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그것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핵심요소로 간주한다.

⁵⁷ De Roover,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edici Bank, 1397-1494*.

⁵⁸ 메디치 은행과 그 자회사들은 또한 외부 인물들 즉, 대귀족, 교회의 승려, 용병대장, 필립 드 코민과 Ymbert de Batarnay와 같은 정치적 인물들로부터도 예금을 받았다. 그런 예금들은 일반적으로 상환 요청 시 지불되지 않았고,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이자 또는 *discrezione*이 지급되던 정기예금이었다. (De Roover,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edici Bank 1397-1494*, 101쪽)

⁵⁹ 같은 책, 213쪽.

시점에서는 은행의 지불준비금이 총 요구불예금 부채의 50%까지 내려갔었다고 추정한다.⁶⁰ A.P. 어셔가 사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신용확장 비율이 은행이 받은 요구불예금액의 두 배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비율은 은행의 존속기간 내내 점차적으로 악화되었으며, 특히 곤경에 빠지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되는 1464년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다. 메디치 은행을 몰락시킨 보편적인 경제 금융 위기의 뿌리는 카를로 M. 키폴라가 14세기 피렌체 연구에서 주장했던 것과 매우 닮아 있다. 사실, 은행가가 요구불예금을 남용한 결과로 일어난 신용확장은 화폐 공급과, 그로 인한 걸으로 보기에 “이로운” 단기 영향을 증가시켜 가짜 경기 호황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진짜 예금액의 증가가 아닌, 신용으로 인한 화폐 공급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 과정의 역전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것이 바로 15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거대한 상업 중심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제 분석 면에서, 역사적 과정에 대해 레이몽 드 루봐는 불행히도 키폴라보다 이해의 폭이 좁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이런 보편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라고 까지 말한다.⁶¹ 그러나 사업의 대부분을 부분지급준비은행에 의존했던 다른 은행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디치 은행이 결과적으로는 파산한 것이 하나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비록 레이몽 드 루봐가 15세기 말에 보편적 위기를 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메디치 은행의 마지막 단계에 관한 그의 상세한 설명은 어마어마한 가짜 신용확장의 과정에 따른 피하기 어려운 경기후퇴와 금융 긴축정책이 갖는 전형적인 조짐을 모두 보여준다. 루봐는 메디치가(家)가 여신규제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은행의 자산 유동성을 증가시키려고 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메디치 은행은 매우 낮은 지급준비율로 운영됐는데, 그 비율은 총 자산의 10% 이하로 떨어졌고, 이것은 경기후퇴 시기 동안 은행의 의무를 다하기엔 턱없이 부적절한 수준이었다.⁶² 메디치 은행은 결국 파산했고

⁶⁰ 같은 책, 245쪽.

⁶¹ 같은 책, 239쪽.

⁶² 은행의 존속기간 동안, 은행가들은 요구불예금을 100%로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존의 법 원칙을 시간이 갈수록 위반하기 시작했고 지급준비율도 꾸준히 감소했다:

현존하는 대차대조표를 꼼꼼히 살펴보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즉, 메디치 은행이 총 자산의 10%도 안 되던 극히 보잘것없는 현금 보유액을 가지고 운영됐다는 것이다. 밀라노의 Francesco Datini와 Borromei 가문과 같은 중세 상인출신 은행가들의 재정상태에선 이것이 사실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화폐 대체물을 만들어 냈던가를 보면 현대 역사가들은 그저 놀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준비금이 적당한 것이었던가, 그리고 메디치 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고통 받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같은 책, 371쪽)

은행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 손으로 넘어갔다. 메디치의 경쟁자들도 똑같은 이유로 파산했다. 금전의 불규칙기탁에 관련된 기존의 법 원칙이 침해되자마자 가짜 신용확장이 바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경기후퇴가 여지없이 일어났던 것이다.

14·15세기의 카탈로니아 은행 : Taula de Canvi

이탈리아 상업 도시의 금융업 발전과 병행하여 바르셀로나에 민간 은행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정복자 제임스 1세(1213 - 1276)의 통치하에 금융업을 관할했던 고딕, 로마법이 폐지되고, 대신 "Usos de Barcelona"이 시행 된 시대이다. 또한, 은행업을 통제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상세한 규제 방안이 1300-1301년 사이에 스페인 국회에 의해 마련되었다. 국회는 은행가의 권력, 권한, 책임을 확정하고 보증인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이때 채택된 규칙 중 일부는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1300년 2월 13일, 이 법은 파산한 은행가는 바르셀로나 전역에서 공공 대변인에 의해 비난 받을 것이며 예금액 전액을 주인에게 환불하기 전까지는 빵과 물로만 연명하는 엄격한 내핍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⁶³ 일 년 후인 1301년 5월 16일에는 은행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제3자에게서 담보물이나 지불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했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 카운터 위로 테이블보를 덮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담보물을 받고 테이블보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은행가와 달리 이런 은행가는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만인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규칙을 어기는 은행가, 즉, 테이블보는 사용하되 담보물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 사기죄로 고소되곤 했다.⁶⁴ 이런 규정들로 볼 때, 바르셀로나의 금융 시스템은 초기에는 꽤 지불능력이 있었고 은행들은 은행 예금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법 원칙을 일반적으로 존중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민간 은행가들이 곧 고객을 속이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타났으며, 1321년 8월 14일에는 은행 파산에 관련된 규정들이 수정되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은행가는 즉시 파산 선언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일 년 이내에 부채를 갚지 못하면 대중적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파산 및 부채 미상환 소식은 관청의 포고를 외치는 관리가 카탈로니아 전역을 돌며 알리고 다닐 것이었다. 직후 죄를 지은 은행가는 자신의 카운터 앞에서 바로 참수되고 남은 재산은 예금자에게 빚을 갚기 위해 처분된다. 실제로, 이것은 은행의 기탁 계약에 관련해 정부가 보편적인 재산권 원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하나의 예였다. 파산한 대부분의 카탈로니아 은행가들이 도주하거나 일 년

⁶³ Usher, *The Early History of Deposit Banking in Mediterranean Europe*, 239쪽.

⁶⁴ 같은 책, 239쪽.

이내에 빚을 갚으려 노력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적어도 프란체슈 카스텔로라는 한 은행가가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1360년 자신의 카운터 바로 앞에서 참수형을 당했다.⁶⁵

이러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유동 자금은 요구불예금으로 받은 금액과 일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14세기에 일제히 파산했는데, 카를로 M. 키폴라가 연구 했던 것과 같은 기간에 발생해 이탈리아 금융계를 파괴했던 경제 신용 후퇴와 같은 것이었다. 카탈로니아 은행이 이탈리아 은행들보다는 조금 더 오래 버틴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사기 행위에 대한 어마어마한 벌금 때문에 지급준비율이 올라갔던 게 분명하다), 문서 기록은 결국 카탈로니아 은행도 대부분 그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 1397년 3월, 추가적인 규제들이 도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은행들이 예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고, 그나마 운이 좋을 경우에만 원래 예금했던 황금으로가 아니라 별 가치도 없는 동전으로 주자 사람들의 불평이 잇따르면서였다.⁶⁶

14세기의 금융 위기가 기탁자의 재산권을 감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대신 이것은 시 정부 은행인, *Taula de Canvi*, 즉, 바르셀로나 예금 은행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은행은 사람들에게서 예금을 받아 시의 공공지출 부분에 필요한 돈을 대고 바르셀로나 시를 위해 국채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런 이유로, *Taula de Canvi*는 부정직한 은행 이익을 직접 취하려고 정부가 은행을 만들었던 전통적 은행의 모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A.P. 어셔는 이 은행의 흥망성쇠에 대해 자세히 연구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얘기지만, 이 은행은 1468년 2월에 지불 중지를 선언하고 파산했다. 은행이 가진 준비금의 대부분이 바르셀로나 시에 대출로 흘러 들어가고 이 은행은 돈을 돌려달라는 기탁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⁶⁷ 그 시점부터 이 은행은 재정비되어 점점 더 많은 특권을 부여 받았다. 예를

⁶⁵ 같은 책, 240, 242쪽. 최근에 일어난 스페인의 금융 위기와 스캔들에 비춰 볼 때, 14세기 카탈로니아에서처럼 다시 엄격하게 사기 은행가를 처벌하는 것이 좋은 권고책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건 농담이지만, Elena Sousmatzian라는 이름의 한 학생은 베네수엘라를 황폐화시킨 최근의 금융위기를 겪으며 기독교사회당 Copei의 한 상원의원이 대중매체에 아주 “진지하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예기치 않게도, 이 의원의 발언은 이번 위기로 타격을 받은 예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⁶⁶ 같은 책, 244쪽.

⁶⁷ 1468년 2월, 오랜 진통 끝에 이 예금 은행은 정화지불을 완전히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장부에 남아 있던 모든 잔고에 대해서는, 5% 이자가 지불되는 연금을, 받길 원하는 예금자들에게 발행했다. 이런 연금을 받길 원하지 않던 예금자들은 계속 은행의 채권자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현금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건

들어, 사법에 의해 처분 또는 몰수 된 예금을 독점적으로 관리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 은행의 지속적인 수입의 원천이 되었고, 시의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구실했다. *Taula*는 또한 모든 행정상의 예금, 후견인, 증거 소송 절차에서 나오는 재원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자금은 이 은행에 예치되어 인출되지 않았다.⁶⁸

4. 카를 5세(Charles V) 시대의 은행과 살라망카 학파의 교리⁶⁹

은행 업무의 역사 연구에서 카를 5세가 통치한 시대는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 이유로, 첫째, 신대륙에서 들어온 귀금속의 대량 유통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경제 축을 북 이탈리아 무역 도시들에서 스페인, 특히 세비야(Seville)와 몇몇 스페인 상업 중심지로 이동시켰다. 둘째,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언제나 자금 부족에 시달렸던 카를 5세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으로 눈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저 없이 자산의 유동성을 이용했고 정부와 은행 간의 전통적 공모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정부와 은행의 은밀한 협력은 그 당시 이미 보편적인 전형이었다. 그러나 카를 5세는 황실의 재무부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는 뻔한 얘기지만 스페인 경제와 그의 국정 운영에 자금을 댔던 은행들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 받던 살라망카 학파의 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목격한 금융 및 은행업에 대해 숙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이 남긴 귀중한 분석들은 꼼꼼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제부터 각 역사적 사건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세비야 은행의 발달

카를 5세 통치 시기 동안 세비야에 있었던 민간 은행의 발전에 대한 상세한

허락되지 않았다. (같은 책, 278쪽)

⁶⁸ 1433년의 문서들에 의하면, 바르셀로나의 *Taula de Canvi* 은행의 예금 중 적어도 28%는 강제적인 사법 압류물이었으며, 이런 예금 원천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Usher, *The Early History of Deposit Banking in Mediterranean Europe*, 339쪽, 그리고 Kindleberger, *A Financial History of Western Europe*, 49쪽을 참조하라. 어쨌든 지급준비율은 갈수록 악화되다가 1468년 지불 정지를 선언했다. 바르셀로나 예금 은행은 그 후 재정비되었다가, 사법 압류물에 대해 누렸던 특권과 도시에 대한 대출 제한 덕분에 이후의 300년 동안 허약한 금융기관으로 존속한다. 1714년 9월 14일, 바르셀로나가 부르봉 왕가에 점령된 직후, 1723년 1월 14일에 Count of Montemar가 초안한 규정들에 근거해 조직된 새로운 기관에 이 은행이 넘어갔다. 이 규정들은 1853년에 최후 청산될 때까지 은행업무 관리의 근간이 되었다.

⁶⁹ 이 섹션의 또 다른 영어 버전은 Jesús Huerta de Soto "New Light on the Prehistory of the Theory of Banking and the School of Salamanca,"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9, no. 2 (1996): 59-81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라몬 카란데(Ramon Carande)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⁷⁰ 카란데에 따르면, 1545년 세비야의 Casa de Contratacion(무역 상사)가 귀금속을 몰수하기 전에 편집된 은행들의 리스트를 발견한 것이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궁핍해진 재무부는 카를 5세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 원칙을 무시하게끔 부추겼고 그는 세비야 은행 금고에 있던 예금과 같이 모든 자금을 눈에 띄는 대로 압류했다. 정부의 허가를 얻은 은행들 또한 금전의 불규칙기탁을 지배하는 기본 법 원칙을 위반해 막대한 액수의 고객의 예금을 개인 사업 용도로 갖다 썼다. 그러나 은행 금고에 남아있던 돈은 무엇이건 막무가내로 대놓고 몰수하던 황제의 정책은 은행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은행이 예금된 대부분의 돈을 제3자에게 빌려주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정부가 은행의 준비금을 존중해줄 거라는 궁극적 보장이 없다면, 예금된 대부분의 돈을 대출 형태로 민간 기업계나 상업계에 투자하여 정부의 징발을 피하고 보다 높은 이윤을 챙기는 편이 훨씬 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은행가들은 황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황실에 대한 의무적 대출이라는 형태로 그 돈을 강제 착복한다는 것을 경험상 익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예금 몰수 행위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예금을 지켜줘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자의 자산을 징발하여 은행의 수익을 찬탈하려는 정부의 성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은행의 수상쩍은 행위의 주요 수혜자였던 통치자는 결국 그들의 불법 행동을 정당화시켜주고 온갖 종류의 특권을 부여하여 법망의 아슬아슬한 꼬트머리에서 부분 준비율로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었다.

주요 저서인 『Carlos V y sus banqueros(카를로스 5세의 은행)』에서 라몬 카란데는 카를 5세 치하 세비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은행가들로, 에스피노사스(Espinosas), 도밍고 데 리사라사스(Domingo de Lizarras), 페드로 데 모르(Pedro de Morga), 또 그 다음에 위치하는 은행가에, 크리스토팔 프란시스퀸(Cristobal Francisquin), 디에고 마르티네스(Diego Martinez), 후안 이니구에즈(Juan Iniquez), 옥타비오 데 네그론(Octavio de Negron) 등을 제시한다. 이들은 모두 나중에 가차 없이 파산의 길을 걸었다. 대개는 기탁자의 요구불예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는 데 필요한 유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카를 5세와 세비야 시로부터 획득한 허가 또는 특권의 도움으로 부분지급준비금만 가지고 일을 했다는 뜻이다.⁷¹ 그 준비금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⁷⁰ Ramón Carande, *Carlos V y sus banqueros*, 3 vols. (Barcelona and Madrid: Editorial Crítica, 1987).

⁷¹ 17세기 스페인 은행들도 특별히 운이 더 좋지는 못했다:

17세기 초에는 세비야, 톨레도, 그라나다 은행들이 있었다. 1622년 직후, Alejandro Lindo의 불평 섞인 말에 따르면, 그 중 하나도 지금까지 버텨내지 못했으며 Jacome Matedo 소유였던 마지막 은행은 세르비아에서 파산했다고 한다(M. Colmeiro, *Historia de la economía política española* [1863; Madrid: Fundación Banco Exterior, 1988], vol. 2, 342쪽)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신대륙과의 무역에 사용된 상선 등의 선단에 개인적 투자를 했고 세금의 징수에도 관여했다는 건 알 수 있다. 그렇게 위험한 모험은 잘 진행될 때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늘 매우 유혹적인 법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거둬들인 은행 소유 귀금속의 몰수는 은행가들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계속하도록 더욱 부채질했다. 결과적으로, 에스피노사스의 은행은 1579년에 파산했고 그 주요 임원들은 구속되었다. 도밍고 데 리사라사스의 은행은 1553년 3월 11일에 파산했는데, 당시 그는 650만 메러베이다(maravedi, 스페인의 옛 금화: 역주)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1553년에 처음 은행업을 시작했던 페드로 데 모르의 은행은 필립 2세의 두 번째 파산 기간이었던 1575년에 도산했다. 이보다 덜 유명했던 은행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토마스 그레스햄(Thomas Gresham)은 이 부분에 관해 흥미로운 말을 했다. 그는 32만 두카(ducat, 13세기 베니스에서 주도된 금화: 역주)를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명령을 황제와 메리 여왕으로부터 받고 세비야로 떠났다. 그레스햄은 인도 제국의 보물을 받은 도시에 그토록 돈이 부족하다는 것에 아연실색했다. 상황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레스햄은 자기가 돈을 인출하자마자 도시의 모든 은행들이 지불 정지를 선언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다.⁷² 라몬 카란데가 이 은행들이 파산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일화적인 주변적인 정보들에서만 그 이유를 찾고, 부적절한 분석 방법만을 사용했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화적인 주변적 정보들이란, 은행의 지불 능력을 끊임없이 위협했던 귀금속에 대한 탐욕, 계속해서 은행을 심각한 곤경에 몰아넣었던 과감한 개인 사업 모험(용대선, 해외 무역 선박 운송, 보험, 다양한 유형의 투기 등), 거둬들어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몰수해 가던 황실 재무부와 유동성 부족과 같은 것들을 일컫는다. 그는 한 번도 다음과 같은 일련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건 즉,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이 충분한 실제 저축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짜 신용확장을 일어나게 만들었고, 이는 신대륙에서 수입된 귀금속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짜 경기 호황을 야기했고, 이 호황은 다시 경제 위기와 필연적인 경기후퇴를 이끌었으며 이것이 은행 파산의 진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라몬 카란데가 빠뜨린 이론은 적어도 부분적이거나 카를로 M. 키폴라의 16세기 후반 경제 금융 위기 연구에 의해 보완되었다. 비록 이 분석이 이탈리아 은행에만 국한되긴 했으나, 스페인 금융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그 당시 두 나라가 금융 및 무역 루트를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³ 키폴라에

⁷² 결과적으로 엄청난 노력 끝에 그는 20만 두카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저 때문에 세르비아에 있는 은행들이 모두 파산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Carande, *Carlos V y sus banqueros*, Vol.1, 299-323쪽을 참고하라. 특히 315-16쪽에는 그레스햄의 세르비아 방문 사실이 나온다.

⁷³ Cipolla, *Money in Sixteenth-Century Flor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101ff

따르면, 16세기 후반의 화폐 공급(오늘날의 M1 또는 M2)에는 막대한 양의 “은행 돈(bank money)”, 또는 요구불예금에 대해 100% 지불준비금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은행가들이 무에서 창조해낸 예금(deposits)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가짜 경제 성장을 일으켰지만, 곧 16세기 후반 들어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하여 예금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피렌체 주요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키폴라의 주장에 따르면, 리치 은행(Ricci Bank) 임원들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이런 신용확장이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들은 예금의 일부를 유용하고 정부 채권을 구입하거나 대출 자금에 충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른 민간 은행들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윤을 보전하려면 똑같이 이런 신용확장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은 신용거래 붐을 불러 일으켰고, 거대한 가짜 신용확장 단계로 이어졌다가 곧 역전되기 시작했다. 1574년, 한 성명서가 은행가들이 예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를 거부한 것을 고발하며 그들이 “잉크로만 지불했다”는 사실을 맹렬히 비난했다. 은행가들이 준비된 현금으로 예금을 돌려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베네치아 도시들은 심각한 돈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장인들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고 부채도 지불할 수 없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함께 혹독한 금융 긴축(디플레이션)이 뒤따랐다. 키폴라는 그의 흥미로운 저서에서 이에 대해 세세히 분석하고 있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키폴라의 분석은 라몬 카란데의 그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의 분석도 완전히 적절한 것은 아닌 데, 왜냐하면 그는 경제위기와 금융 긴축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악의 뿌리는 그 이전의 가짜 신용확장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확장은 결국 동일한 양과 질의 물품(tantundem)의 100% 보호와 보관 의무를 은행가들이 지키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⁷⁴

카를 5세와 유명한 금융가문이었던 푸거가(家)(스페인에서는 *Fucales*로 알려짐)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있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푸거가는

참고. 16세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밀접한 금융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Felipe Ruiz Martín, *Pequeño capitalismo, gran capitalismo: Simón Ruiz y sus negocios en Florencia*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1990)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⁷⁴ 키폴라에 따르면, 1570년대에 리치 은행은 더 이상 현금 인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잉크로만” 지불하거나 은행 방침만 들먹일 뿐, 실제적인 지불을 정지했다. 피렌체 정부는 징후에만 초점을 맞추고, 단순한 조례로 이 염려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전형적 조치만 취했다. 정부는 은행가들에게 고객에게 즉각 현금으로 예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로 강제하기는 했으나, 진짜 문제의 원인(예금 횡령과 그것을 대부로 돌린 일, 100% 예금지급준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것과 같은)을 진단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았다. 결국, 정부가 뒤이어 발표한 법령들도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는 실패했고, 위기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가 1570년대 중반에 이르러 크게 터지고 말았다. Cipolla, *Money in Sixteenth-Century Florence*, 107쪽 참고.

양모와 은 상인으로 시작해서 자기네가 살고 있던 도시와 베니스 간 향신료 무역에도 손을 댔다. 후에 금융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한창 전성기일 때는 유럽 전역에 18개의 지사를 두기도 했다. 그들은 차관을 제공해 카를 5세가 황제로 선출되는 것을 도왔다가 나중에는 그의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은 선적을 대신 담보로 받고 세금 징수권을 따냈다. 그들의 사업은 현상을 유지하다가 필립 2세가 궁정의 모든 채권자에게 *de facto*(사실상) 지불을 정지한 1557년, 대부분 힘을 잃어버렸다. 푸거가는 도산 직전까지 물리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1634년까지 군령에 속하는 토지 임대사업을 계속했다.⁷⁵

살라망카 학파와 은행업

이상과 같은 금융 및 은행업계의 현상은 오래지 않아 살라망카 학파 지성들의 예리한 시야에 포착되었다. 가장 신뢰할만한 연구에 의하면, 살라망카 학파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가 발전시킨 현대 주관적 가치이론의 토대를 닦은 사람들이다.⁷⁶

⁷⁵ 푸거 은행과 카를 5세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출처는 라몬 카란데가 집필한 *Carlos V y sus banquero*일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믿을만한 연구로는 Rafael Termes Carreró의 *Carlos V y uno de sus banqueros: Jacobo Fugger* (Madrid: Asociación de Caballeros del Monasterio de Yuste, 1993)이다. Rafael Termes는 푸거가의 스페인 지배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한다:

마드리드에는 푸거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 Calle de Fúcar가(街)는 아토차街와 모라틴街 사이에 위치하며 그들의 성을 히스패닉어로 쓴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fúcar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도 Spanish Royal Academy의 *Diccionario*(25쪽)에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재되어 있다.

⁷⁶ 스페인 학자들의 경제 이론에 대한 공헌을 고찰한 저자들과 글들은 다음과 같다: Murray N. Rothbard, *The Foundations of Modern Austrian Economics* 중 “New Light on the Prehistory of the Austrian School”와 *Economic Thought Before Adam Smith*, Edwin G. Dolan 편집 (Kansas City, Mo.: Sheed and Ward, 1976), 각각 52–74 쪽과 97–133쪽; Lucas Beltrán, *Ensayos de economía política* 중 “Sobre los orígenes hispanos de la economía de mercado,” (Madrid: Unión Editorial, 1996), 234–54쪽; Marjorie Grice-Hutchinson, *The School of Salamanca: Readings in Spanish Monetary Theory 1544–1605* (Oxford: Clarendon Press, 1952), *Early Economic Thought in Spain 1177–1740*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8), *Economic Thought in Spain: Selected Essays of Marjorie Grice-Hutchinson*, Laurence S. Moss and Christopher K. Ryan, ed. (Aldershot, England: Edward Elgar, 1993); Alejandro A. Chafuen, *Christians for Freedom: Late-Scholastic Economic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6); Huerta de Soto, “New Light on the Prehistory of the Theory of Banking and the School of Salamanca,” 59–81쪽 등이 있다. 살라망카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에 끼친 지적 영향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단발적으로 일어난 역사의 기이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카를 5세와 그의 형제인 페르디난드 1세의 통치 기간 중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확립된 긴밀한 역사, 정치, 문화적 연결의 결과였다. 이러한 결속은

연대순으로 말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저서는, 아마도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루이스 사라비아 데 라 칼레 박사(Doctor Luis Saravia de la Calle)가 집필하고 1544년 메디나 델 캄포(Medina del Campo)에서 출판된 『Instrucción de mercaderes(상인 입문)』이다.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은행가들을 거칠게 비난하며 그들을 “모든 것을 삼키는 게걸스러운 식충이, 피네우스의 하피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고, 혼란시키고, 도둑질하고 오염시킨다”라고 일갈했다.⁷⁷ 그는 은행가들이 “마치 사창가의 창녀가 자리를 꿰차고 앉듯이, 거리로 나가 테이블, 의자, 현금 상자, 장부를 펼쳐놓고 한 자리 차지”하고는, 국가에서 주어진 허가와 보증서를 가지고 고객에게서 예금을 모아, 그들에게 부기와 출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납입 서비스도 해 주고, 심지어 예금에 이자까지 지불한다고 말한다.

올바른 법적 논증으로 볼 때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이자는 화폐 예금의 본질과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으며, 제국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 위치했던 이 두 나라(스페인과 비엔나) 사이에서, 이탈리아는 진정한 문화, 경제, 금융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Jean Bérenger의 흥미로운 책, *A History of the Habsburg Empire, 1273–1700*, C.A. Simpson, [London: Longman, 1994, 133–35쪽]을 참조할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은행업에 관한 학자적 주의를 이런 책들에서 대부분 간과되고 있다. 마조리 그리스 허치슨은 이 주제에 관해 라몬 카란데가 짧막하게 말한 걸 그대로 되풀이 할 뿐이었다(*The School of Salamanca*, 7–8쪽 참조). 라몬 카란데 또한 자신의 책 *Carlos V y sus banqueros*, 1권 297–98쪽에서 은행업에 대한 토마스 데 메르카도의 생각을 간단히 인용할 뿐이었다. 이보다 좀 더 깊은 고찰을 한 사람은 Alejandro A. Chafuen이다. 그는 최소한 은행업에 대한 몰리나의 견해를 전달하며 살라망카 학파가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을 어느 정도까지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에 대해 숙고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자료는 Restituto Sierra Bravo의 저서, *El pensamiento social y económico de la Escolástica desde sus orígenes al comienzo del catolicismo social*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Instituto de Sociología “Balmes,” 1975)이다. 이 책, 1권, 214–37쪽은 은행업에 관한 살라망카 학파 회원들의 견해에 대해 다소 편향된 해석을 담고 있다. 시에라 브라보에 따르면, 이 학파의 일부 이론가들(도밍고 데 소토, 루이스 데 몰리나, 그리고 토마스 데 메르카도)은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보다 견고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고수했던 이 학파의 다른 회원들의 저작들은 무시하고 있다. 동일한 비판이 Francisco G. Camacho에게도 가해질 수 있는데, 특히 그가 몰리나 저작의 스페인 번역본에 더해 쓴 “서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러하다(“Introduction” *La teoría del justo precio* (Madrid: Editora Nacional, 1981), 33–34쪽). 살라망카 학파의 일부 학자들이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을 받아들였다는 이런 주장은 Francisco Belda, S.J.가 “Ética de la creación de créditos según la doctrina de Molina, Lessio y Lugo,”라는 제목으로 *Pensamiento* 19 (1963): 53–89에 출판한 내용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본문에서 이미 언급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은행업에 관한 살라망카 학파의 교리에 대해 이러한 작가들이 내리는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8장 섹션1에서 더 자세히 다뤄 보겠다.

⁷⁷ Saravia de la Calle, *Instrucción de mercaderes*, 180쪽.

맞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서든 은행가는 예금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심지어 은행가와 그런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을 혹독하게 힐책하며 이렇게 말한다:

상인인 그대가 돈을 빌리지 않고 예금하겠다고 했을 때 비웃음 받을 일이 있다.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수탁자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따르는 번잡스런 업무에 대해 수고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부당 이득자에게 자신의 돈을 론이나 예금 형태로 맡기고, 그 이익의 일부를 취한다면, 당신은 죄책감의 일부도 함께 취하게 되는 꼴이며, 그 죄책감은 거두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⁷⁸

그의 저서 12장에서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은행가가 이행하는 두 개의 업무 즉, 요구불예금과 정기 예금이라는 서로 극명히 다른 두 업무를 깨끗하게 정리해 분리한다. 첫 번째의 경우, 고객은 자신의 돈을 은행가에게 맡길 때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돈은 더 안전하게 보관되고, 손쉽게 지불될 것이며 계산과 보호에 따르는 귀찮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돈을 맡긴다는 이러한 선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는 일정량의 당좌 대월은 이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⁷⁹

한편, 이 계약과 전혀 다른 정기 예금은 실제로 대출이나 소비대차이며, 은행가에 일정 기간 맡겨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에 따라 이러한 거래를 비난한다. 더 나아가, 그는 요구불예금 거래의 경우 고객은 은행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한다.

왜냐하면 돈을 예금하면 보관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며, 보호와 보관을 필요로 하는 돈이나 재산을 기탁할 때는 그로부터 어떤 수익도 얻으려 해선 안 된다.⁸⁰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돈을 예금하고 은행가가 이자를 지불하기를 기대함으로써 은행가의 불법 행위를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고객들을 계속해서 힐난한다. 그가 분명하게 말하듯이,

맡기는 돈을 잘 보관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 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은행가에게 돈을 맡기는 자는 죄로부터, 적어도 작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건 마치 호색한에게 처녀를 넘기거나, 아무거나 마구 먹어대는

⁷⁸ 같은 책, 181쪽.

⁷⁹ 같은 책, 195쪽.

⁸⁰ 같은 책, 196쪽.

폭식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⁸¹

더욱이 예금자는 자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만 은행가가 대출해주거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로는 양심을 무마할 수 없다.

그는 은행가가 자기가 예금하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만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부당 이득자인 그 어떤 은행가에게도 이런 기대는 할 수 없을 때도 그렇다. 그러기는커녕, 은행가는 돈을 맡자마자 고객이 맡긴 예금을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하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든다. 도대체 자기에겐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 7에서 10%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그 돈을 횡령하려는 유혹에서 버틸 은행가가 얼마나 있겠는가? 비록 당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더라도(실제론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은행가는 당신의 돈으로 사업을 할 때 아주 확실히 죄를 지으며, 이는 곧 당신의 돈을 사용해서 당신 이웃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나 같다.⁸²

이처럼 사라비아 데 라 칼레의 논리는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이용한 대출 이익의 취득은 명백한 불법이며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생각은 고대 로마법 학자들이 주창한 정의와 일치하고 이미 제1장에서 보았듯이,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이 가진 그 본질, 목적, 법적 성격과 완전히 일치한다.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또한 예금을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다 겸손한 이익에 만족하는 대신 그 돈을 횡령하는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의 불균형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설명한다.

만약 임금을 받는다면, 생활유지에 필요할 만큼의 적당한 정도면 된다. 남에게 약탈한 것으로 교외에 저택을 짓고 호화로운 사유지를 사들이고 하인을 부리고 가족에게 화려한 사치품을 사주고, 성대한 연회를 열고 멋진 파티복을 구입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특히 부정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 당신이 가난했고 보잘것없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러하다.⁸³

이에 덧붙여,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은행가가 파산하기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다소 거친 이론적 분석을 내놓는데, 이에 따르면, 그러한 “부당 이득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용확장 이후에 경기후퇴가 뒤따르며, 그 기간 동안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 은행의 연쇄 도산이 생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⁸¹ 같은 책, 197쪽.

⁸² 같은 책.

⁸³ 같은 책, 186쪽.

상인이 부당 이득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파산하게 만든다. 은행가가 지불 중지를 선언한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런 대금업자는 곧 모든 문제의 시작, 그리고 원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썼을 것이며, 재화는 그것의 정당한 가치로만 평가되고 엉뚱하게 지나친 가격이 매겨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자들이 스페인에서 이런 부당 이득자를 참아내는 걸 멈추는 건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세상의 다른 나라 어디서든 그들을 참아주는 곳은 없으며 궁전과 왕국에서 이 해로운 역병을 추방하고 있다.⁸⁴

알다시피 다른 나라의 정부가 스페인 정부보다 더 잘 은행가들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든 벌어지고 있다. 통치자들은 결국 은행가에게 예금자의 돈을 사리사욕을 위해 횡령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은행 시스템에서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와 맞바꾸는데 이 편이 세금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라비아 데 라 칼레는 분석에 대한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부당 이득자에게 돈을 맡겨선 안 된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만약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로부터 멀리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면, 대금업자가 죄짓게 만드는 걸 피하기 위해 멀리해야 한다.

한층 더 나아가, 그는 만약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금 기탁자는,

대금업자가 지불 중지를 선언하더라도 결코 충격 받지 않을 것이다. 그가 파산한다면, 우리가 자주 보아왔고 신이 허락해왔듯이, 그와 그의 주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이득을 모두 잃도록 내버려 두자.⁸⁵

알다시피, 사라비아 데 라 칼레의 명석함과 유머를 갖춘 분석은 흠잡을 데 없고 반박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은행가들을 비판할 때 그는 그들이 요구불예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보다는 교회법의 이자 금지령을 위반해서 이자를 물고 지불했다는 사실을 다소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다.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을 고찰한 또 다른 사람은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Martin de Azpilcueta)로, 그는 "나바로(Navarro) 박사"로 더 유명하다. 1556년 말, 살라망카에서

⁸⁴ 같은 책, 190쪽; 이탤릭체 추가됨.

⁸⁵ 같은 책, 198쪽.

첫 출판된 자신의 책, 『Coentario resolutorio de cambios(환전에 대한 논평)』에서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는 요구불예금의 은행 거래로 구성되는 “보관을 위한 은행업”을 분명히 언급한다. 그에게 있어서 보관을 위한 은행업 또는 불규칙기탁 계약이란 완전히 정당한 사업으로, 이는 은행가가

여러 목적으로 맡겨진 돈을 지키는 수호자, 수탁자, 그리고 보증인으로,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상인이나 사람에게 예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업무의 대가로, 이 거래와 책임이 공화국에 유용하고 정당한 것이고 노동을 하는 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공평한 일이므로, 그는 공화국이나 기탁자에게 공정한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물릴 수 있어야 한다. 은행가가 할 일은 많은 상인들의 돈을 받아 보관하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이며 그들의 계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그 기록작업은 대단히 어렵고 때로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거래는 계약서로 공식화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예금으로 보관, 지불, 기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 알려지고 공정하며 축복받은 거래인 은행 업무를 위해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합의이기 때문이다.⁸⁶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는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을 완전히 합법적인 계약으로 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를 통해 전문가(은행가)에게 돈을 안전하게 맡기고, 은행가는 좋은 부모처럼 그 돈을 지켜주고 언제든지 기탁자가 쓸 수 있게 보관하며 원하는 현금 서비스는 무엇이든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 기탁자에게 수수료를 물을 권리를 가진다. 사실,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는 기탁자가 수탁자 또는 은행가에게 수고료를 지불해야 하며 절대 그 *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기탁자는 “은행가가 돈을 받아 보관하는 일로 야기되는 문제들과 염려에 대한 보상으로 보수를 지불”하고, 은행가는

자신의 업무를 정직하게 이행하고 공정한 임금에 만족해야 한다. 은행가에게 임금을 주는 사람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계정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그들에게 값을 게 있는 사람들이지, 아무 것도 빚지지

⁸⁶ Martín de Azpilcueta, *Comentario resolutorio de cambios* (Madrid: 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1965, 57-58쪽. 나바로 박사의 학설을 조사할 때, 우리는 1560년 Coimbra에서 Ioam de Barrevera가 *Comentario resolutorio de onzenas*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포르투갈 판본 외에, Andrés de Portanarijs가 1556년 살라망카에서 처음 출판한 첫 번째 스페인 판본을 사용했다. 위의 인용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판본에 77-80쪽에 걸쳐 나온다.

않은 사람들이 아니다.⁸⁷

사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는 (사라비아 데 라 칼레와 똑같은 이론을 사용하여) 예금을 보관해주는 데 대해 아무 보수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그것을 통해 이자를 벌려고 하는 고객들을 확실하게 비난한다. 나바로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이런 종류의 거래에 있어선, 은행가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맡기는 쪽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보관 수수료는 지불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돈으로 벌어들인 이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고, 은행가가 현금으로 번 이자가 보수로도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러다 은행가가 수수료라도 요구할라치면 곧바로 은행을 옮겨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고객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은행가들은 수수료는 포기하고 대신 자신들한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게 되는 것이다.⁸⁸

토마스 데 메르카도(Tomas de Mercado)는 그의 저서 『Suma de tratos y contratos(매매 계약 사례 모음집)』에서 앞선 저자들과 똑같은 연구선상에서 은행 업무를 분석한다. 그는 예금자가 예금을 보관해준데 대해 은행가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결론 내린다.

일반적인 규칙으로 볼 때, 은행가는 자신의 은행에 돈을 기탁하는 사람에게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기탁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기 때문에 매년 일정량의 액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⁸⁹

그러나 토마스 데 메르카도는 세비야의 은행가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관대”한 나머지 예금 보관의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도시의 은행가들은 너무도 귀족적이고 고귀하여 무엇을 부탁하던 보수를 받지 않는다.”⁹⁰ 토마스 데 메르카도는 그들이 수수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 고객에게서 받아들이

⁸⁷ Azpilcueta, *Comentario resolutorio de cambios*, 60–61쪽.

⁸⁸ 같은 책, 61쪽.

⁸⁹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판, 1977년 마드리드 출간, Nicolás Sánchez Albornoz 편집 및 서문 추가, 2권, 479쪽에서 인용했다. Restituto Sierra Bravo의 다른 판본은 1975년에 Editora Nacional가 출판했다. 위의 발췌 부분은 이 판본의 401쪽에 나온다. 원본은 1571년 세비야에서 출판된 “en casa de Hernando Díaz Impresor de Libros, en la calle de la Sierpe”이다.

⁹⁰ Mercado, *Suma de tratos y contratos*,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판본의 Vol.2, 480쪽, 그리고 Restituto Sierra Bravo 판본의 401쪽.

막대한 금액의 돈을 임의로 투자한 개인 사업 거래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토마스 데 메르카도는 단지 여기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을 뿐, 여러 현대 저자들(레스티투토 시에라 브라보(Restitudo Sierra Bravo)와 프란시스코 G. 카마초(Francisco G. Camacho) 등)의 주장처럼⁹¹ 그런 행동들을 결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다. 제1장에서 분석한 로마법의 순수 정의와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의 본질적인 법적 성격의 관점에서 볼 때, 토마스 데 메르카도는 누구보다도 학자적인 작가였다. 그는 불규칙기탁에서 소유권의 양도가 tantundem의 이용가능성이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소유권의 완전한 양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런 말로 자신의 주장을 명료하게 표현한다: “그들[은행가들]은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예금이 소유자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토마스 데 메르카도는 은행가들이 두 가지 근본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우선, 그들은

은행의 예치금을 너무 벗겨 써버려 받은 돈의 인출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가면 안 된다. 수상한 사업 거래에 돈을 다 투자해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이는 확실히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사업 거래에 연루 되어선 안 된다. 그런 거래가 결국엔 성공하더라도 은행가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돈을 맡긴 예금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⁹²

혹자는 이런 권고들을 토마스 데 메르카도가 일정량의 부분지급준비율을 수용하기로 체념한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기탁된 돈이 궁극적으로 은행가의 소유가 아니라 기탁자의 것이라는 법적 견해를 일관되게 피력하며, 은행가는 그의 두 가지 권고 사항 중 어느 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사업이 잘 될 때,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탐욕에 굴레를 씌우기란 매우 힘들며, 누구도 이런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올바른 충고대로 행동하기도 어려운 법이다.⁹³

이런 이유로, 그는 카를 5세가 발동시켰던 규제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한다. 그 규제들의 목적은, 은행가들의 개인 사업 거래를 금지하고 예금자에게 기탁 받은 돈을

⁹¹ 각주 76에 인용된 Restitudo Sierra Bravo, Francisco Belda, 그리고 Francisco García Camacho의 저서들을 참조하라.

⁹² Mercado, *Suma de tratos y contratos*, vol. 2,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판본의 480쪽, Restitudo Sierra Bravo 판본의 401쪽.

⁹³ 같은 책.

무제한적으로 횡령해서 그런 거래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를 감소시키는 데 있었다.⁹⁴

또한 토마스 데 메르카도는 『Suma de tratos y contratos』 제4장 끝부분에서, 신대륙과 무역거래를 했던 상인들 소유의 예금과 귀금속을 보유했던 세비야의 은행가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기탁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한” 결과 두둑한 이익을 챙겼음을 언급한다. 여기서 비록 드러내놓고 그런 관행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급은 합법성에 대한 판단이기보다는 사건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합법성 문제에 대해 그는 자신의 저서 제14장에서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토마스 데 메르카도의 결론에 따르면 은행가들은

환전과 요금청구에도 관여한다. 이 공화국에서 은행가는 극히 넓은 활동영역을 갖고 있는데, 그 영역이 심지어 바다보다도 넓은 나머지 너무 자신을 얹게 펼치다가 나중엔 아예 실종되어 버린다.⁹⁵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의 원칙을 잘못 취급한 학자들로는 도밍고 데 소토(Domingo de Soto)와 루이스 데 몰리나(Luis de Molina), 그리고 후안 데 루고(Juan de Lugo)가 있다. 이들 이론가들은, 본 장의 섹션 3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중세 전통의 주해자들로부터, 특히 *depositum confessatum*의 원리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데 소토와 몰리나는 불규칙기탁을, 동일한 양과 질의 물품(*tantundem*)의 완전한 이용권과 그 소유권이 은행가에게 양도되는 대부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은행가들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한 예금된 자금을 제3자에게 대출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믿었다. 도밍고 데 소토는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런 전제를 최초로 주장했던 것으로

⁹⁴ *Nueva Recopilación*, law 12, title 18, book 5. 1554년 6월 6일 Zamora에서 카를 5세, 후아나 여왕, 필립 왕자에 의해 발효되었다.

Medina del Campo, Rioseco, Villalón의 시장과 이 왕국의 도시, 마을, 촌락의 공공 은행들이... [돈과 관련해 정해진 그들 본연의 임무가 아닌, 개인 사업에 연루되었기에], 이들은 결과적으로 지불을 중지하고 파산했다; 위에 언급된 일들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법령을 발표하노니, *이제부터, 은행가들은 그들에게 정해진 임무에만 전념해야 하며*, 이러한 공공 은행은 두 사람 이상이 아니면 세울 수 없다.... [은행업무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탤릭체 추가됨).

여기서 “공공 은행”이 가리키는 것이 정부 은행이 아니라 특정 조건하에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민간 은행인 점에 주목하라. José Antonio Rubio Sacristán, “La fundación del Banco de Amsterdam (1609) y la banca de Sevilla,” *Moneda y crédito* (March 1948).

⁹⁵ 이것은 라몬 카란데가 *Carlos V y sus banqueros* 1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메르카도가 인용한 것으로, 세비야의 은행가들과 그들 모두를 파산으로 이끈 위기를 소개할 때 언급되었다. Mercado, *Suma de tratos y contratos*,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1977년 판본의 Vol. 2, 381-82쪽, 그리고 Sierra Bravo 판본의 321쪽을 참고하라.

평가된다. 실제로, 그의 저서 『La justicia y el derecho (정의와 법에 관하여)』 (1556) 제6권, 토픽 11에 따르면, 은행가들 사이에는

상인이 현금으로 예금할 경우, 예금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관습이 있었다. 즉, 고객이 그에게 1만을 주면, 그는 1만 2천, 또는 1만 5천을 갚아야 했다. 현금을 보유한다는 건 은행가에게 큰 수익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행위들엔 어느 쪽도 죄를 짓는다는 시각은 존재하지 않았다.⁹⁶

또한 전형적인 신용 창조라는 점에서 도밍고 데 소토가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한 어음 할인 대출이다.

금전의 불규칙기탁 은행 거래에 관해 가장 잘못된 정의를 가지고 있던 학자는 예수회 사람이었던 루이스 데 몰리나였다.⁹⁷ 『Tratado sobre los cambios (거래에 관한 논문)』(1597)에서 그는 불규칙기탁이 은행가들에게 유리한 대부나 소비대차 계약이며, 거기서는 소유권 양도뿐만 아니라 동일한 양과 질의 물품(tantundem)의 완전한 이용 역시 가능하며, 은행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는 중세의 학설을 지지한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 살펴보자.

다른 사람들처럼 은행가도 은행에 예금된 돈의 진정한 소유주이며, 이런 면에서 다른 보관인과는 크게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태로운 대부 형태로 그 돈을 맡는다.

⁹⁶ Habet autem praeterea istorum usus, ut fertur si mercatorum quispiam in cambio numeratam pecuniam deponat, campsor pro maio ri illius gratia respondeat. Numeravi campsori dece milia: fide habebo apud ipsum & creditu pro duodecim, & forfam pro quim decim: qui capsori habere numerata pecuniam bonum est lucrum. Neq, vero quicq vitij in hoc foedere apparet. (Domingo de Soto, *De iustitia et iure* [Salamanca: Andreas Portonarijs, 1556], book 6, topic 11, the only article, p. 591. Instituto de Estudios Políticos edition [Madrid, 1968], vol. 3, 591쪽)

Sierra Bravo (*El pensamiento social y económico de la Escolástica*, 215쪽)는 도밍고 데 소토의 이 말이 그가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⁹⁷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마조리 그리스-허치슨을 비롯한 수 많은 작가들이 루이스 데 몰리나를 살라망카 학파의 이론가들 중 하나로 꼽기를 주저했다. “몰리나를 이 학파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나로서는 다소 망설여진다.” Marjorie Grice-Hutchinson, *Economic Thought in Spain: Selected Essays of Marjorie Grice-Hutchinson, chap. 2*, “The Concept of the School of Salamanca: Its Origins and Development,” 25쪽을 참조하라. 살라망카 학파의 핵심 멤버들은 도미니크회 수사였던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은행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들을 이탈자이자 훨씬 덜 엄격했던 예수회 이론가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하게 지적한다.

그런 예금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 대부이며, 예금된 돈의 소유권은 은행가에게 양도된다. 따라서 그 돈을 잃는 경우 그것은 곧 은행의 손실이 된다.⁹⁸

이 부분은 루이스 데 몰리나 자신이 『Tratado sobre los prestamos y la usura (대출과 이자에 관한 논문)』에서 주장했던 정의와 충돌하는데, 거기서 그는 기한(term)은 모든 대부 계약의 핵심 요소로, 만약 대출 기한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환불 날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대출 기한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⁹⁹ 나아가, 루이스 데 몰리나는, 제1장에 우리가 살펴본 불규칙기탁 계약이 그 법적 본질과 핵심 면에서 대부나 소비대차와 공통된 부분이 전혀 없다는 논의들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러므로, 이 두 계약을 서로 동일시하려는 그의 원리적 시도는 명백한 일보 후퇴인데, 이는 사라비아 데 라 칼레와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의 일관성 있는 주장뿐만 아니라, 이미 로마법체제가 발전시킨 불규칙기탁 계약의 진정한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에 비견해서도 일보 후퇴한 것이다. 때문에, 루이스 데 몰리나처럼 명석하고 통찰력 있는 지성이 불규칙기탁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 원칙을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극단적인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기탁자들이 한꺼번에 자신들의 돈 수천 두카트를 찾아갈 일은 없으므로, 은행가는 그 예금된 돈으로 이윤을 얻거나 아니면 수익은 크지만 손해 볼 위험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¹⁰⁰

이러한 행위가 예금을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거래와 부패를 정당화하고 경제의 침체와 은행 도산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탁자를 위해 tantundem을 보관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 원칙이 존중되지 않을 때 은행 파산을 피할 방법은 없다.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하라”, “위험한 사업 거래에 연루되지 말라”와 같이 모호하고 피상적인 충고는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이 사회와 경제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을 저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루이스 데 몰리나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⁹⁸ Luis de Molina, *Tratado sobre los cambios*, Francisco Gómez Camacho 편집 및 서문 (Madrid: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1991), 137-40쪽 참조. 원본은 1597년 Cuenaca에서 발행되었다.

⁹⁹ Luis de Molina, *Tratado sobre los cambios*, Francisco Gómez Camacho 편집 및 서문 (Madrid: Instituto de Estudios Fiscales, 1991), 13쪽 참조. 원본은 1597년 Cuenaca에서 발행되었다.

¹⁰⁰ Molina, *Tratado sobre los cambios*, 137쪽 참조.

은행가들이 보유한 고객의 예금을 자신들의 개인 사업 거래에 너무 많이 써버려, 나중에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 기탁자가 요구하는 상환 금액을 건네주지 못하거나, 기탁된 자금을 상응하는 수표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건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는 사업 거래에 연루되는 것도 심각한 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해외에 많은 상품을 보낼 경우, 그 상품들은 배가 침몰되거나 해적에 빼앗길 위험에 노출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진 걸 모두 팔아 치우더라도 고객의 예금을 다 갚지 못한다. *사업 거래의 결과가 초라할 때뿐 아니라 좋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덕적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건 그들이 스스로 고객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자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기탁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¹⁰¹

루이스 데 몰리나의 이런 경고는 경청할 만 하지만, 그는 이런 경고와 동시에 “신중한”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을 용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모순을 내포하는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실제로 은행가의 신중 등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위험을 피하고 예금자의 기탁금 이용 가능성을 항상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급준비금 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것 뿐이다.¹⁰²

¹⁰¹ 같은 책, 138-39쪽; 이탤릭체 추가됨.

¹⁰² 몰리나 이래로, 은행 문제에 대해 유사한 의견을 가졌던 학자는 후안 데 루고(Juan de Lugo)로, 그 역시 예수회 수사였다. 이것은 은행에 관한 한, 살라망카 학파가 두 가지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는 건전하고 원리적으로 탄탄한 배경을 갖고 있으며, 미래의 Currency School에 가까웠고, 사라비아 데 라 칼레, 마르틴 데 아스필쿠에타, 토마스 데 메르카도가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팽창론과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의 어리석음에 빠지기 쉬운 경향을 지녔으며, 미래의 Banking School에 가깝다. 루이스 데 몰리나, 후안 데 루고, 그리고, 도밍고 데 소토가 어느 정도는 이 두번째 경향의 학자들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제8장에서 이 논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다. 지금은 후안 데 루고가 몰리나의 전적을 그대로 밟아 은행가들에게 특히 명료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만 알아 두자.

Qui bene advertit, eivsmodi bancarios depositarios peccare graviter, & damno subsequuto, cum obligatione restituendi pro damno, quoties ex pecuniis apud se depositis tantam summam ad suas negotiationes exponunt, ut inhabiles maneat ad solvendum depositibus, quando suo tempore exigent. Et idem est, si negotiationes tales aggrediantur, exquibus periculum sit, ne postea ad paupertatem redacti pecunias acceptas reddere non possint, v.g. si euenrus ex navigatione periculosa dependeat, in qua navis hostium, vel naufragij periculo exposita sit, qua iactura sequunta, ne exproprio quidem patrimonio solvere possint, sed in creditorum, vel fideiussorum damnum cedere debet. (R.P. Joannis de Lugo Hispalensis, S.I.,

5. 합법적 은행업의 새로운 시도: 암스테르담 은행과 18·19세기의 은행업

암스테르담 은행

금전의 불규칙기탁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 원칙에 근거해 은행을 설립하고, 예금자의 재산권을 합당하게 정의 및 방어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부 통제권을 확립하려는 마지막 시도로 1609년에 암스테르담 시립은행이 창설되었다. 이 은행은 통화 혼란과 사기성 (부분지급준비) 은행들의 시대를 거친 뒤 탄생했다. 그런 상황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금융 관계를 복구할 의도로 암스테르담 은행은 1609년 1월 31일에 업무를 개시했고 환전 은행(Bank of Exchange)이라고 불렸다.¹⁰³ 암스테르담 은행의 특징은 애초부터 금전의 불규칙기탁에 대한 보편적 법 원칙을 준수한다는 확약에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금전의 불규칙기탁 계약에서 수탁 은행의 의무는 기탁자가 동일한 양과 질의 물품(tantundem)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기탁자가 예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항상 100%의 지급준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이었고, 바로 이 원칙 위에 이 은행이 세워졌다. 이 조치는 합법적 금융업을 보장하고 은행의 횡령과 파산을 막기 위해서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은행이 요구불예금의 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자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은행가들에게 온갖 특권과 허가를 내주어 그들의 사기 행각을 더욱 부추기고 그 대가로 정부는 재정적 이윤을 얻곤 했다.

아주 오랫동안, 150년 이상을 암스테르담 은행은 창립의 반석으로 삼았던 이 맹세를 양심적으로 잘 지켰다. 설립 초기에 해당하는 1610년에서 1616년 사이, 은행 예금액과 현금 보유액은 1백만 플로린(florin, 지금의 10펜스에 해당하는 2실링짜리 옛날 영국 동전: 역주)에 매우 근접했다. 1619년부터 1635년 사이에 예금액은 거의 4백만 플로린에 이르렀고 현금 보유액은 3백 5십만 플로린을 초과했다. 이후 약간의 불균형이 생겼지만, 곧 1645년에 다시 균형이 회복되었고, 당시 예금액은 11,288,000 플로린, 현금 보유액은 11,800,000 플로린까지 올라갔다. 균형과 성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Disputationum de iustitia et iure tomus secundus, Disp. 28, section 5 [Lyon: Sumptibus Petri Prost, 1642], 406–07쪽)

¹⁰³ 암스테르담 의회에 네델란드 상인회가 낸 탄원서에, 세비야(그리고 베니스)의 공공 은행들을 암스테르담 은행의 모델(!)로 언급하는 흥미로운 발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José Antonio Rubio Sacristán, “La fundación del Banco de Amsterdam (1609) y la banca de Sevilla”을 참고하라.

18세기였던 1721년부터 1722년 사이에 은행의 예금액은 2천 8백만 플로린, 그리고 현금 보유액은 거의 그 금액에 근접한 2천 7백만 플로린이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의 예금액이 이 정도로까지 증가한 것은 다른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1720년대 프랑스에서, 존 로(John Law)가 도입한 금융시스템이 무분별한 통화팽창적 투기를 초래했는데, 이를 피해 빠져 나온 자금들의 피난처 역할을 이 은행이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깊이 다루겠다. 이 혼란은 1772년까지 지속되어, 예금액과 현금 보유액이 모두 2천 8백만에서 2천 9백만 플로린까지 올라갔다. 분명한 것은 이 기간 내내, *100%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겠다던 암스테르담 은행의 의도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덕분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든 기탁된 플로린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고객의 모든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위기로 야기된 공포상황 때문에 네델란드에서 대규모 현금 인출 상황이 벌어져 대부분 은행들이 지불 중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도 (로테르담과 미델부르크 은행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암스테르담 은행의 안정성은 변함이 없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그 모든 혼란에서 예외였다. 논리적으로, 예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높아지고 공고해졌으며, 암스테르담 은행은 당시 경제적으로 문명화된 세계에서 경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피에르 빌라르(Pierre Vilar)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 대사는 1699년에 왕에게 보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네델란드의 연합주에 속한 모든 도시들 가운데, 암스테르담은 가장 위대하고 부유하며 무역활동이 번영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그 부유함과 폭넓은 상권에 있어서는 유럽 전역을 통틀어도 이 도시와 비견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상권은 세계의 절반을 뒤덮었고, 그 부는 너무도 거대해 전쟁 기간 동안 일 년에 5천만 명을 거뜰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¹⁰⁴

1802년이 되자, 앞으로 차차 보게 되겠지만, 암스테르담 은행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설립의 기초로 삼았던 원칙들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전히 대단한 명망을 누렸다. 이에 대해 암스테르담에 근무했던 한 프랑스 영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광산의 보물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에 가둬 두었던 해전이

¹⁰⁴ Pierre Vilar, *A History of Gold and Money, 1450-1920*, Judith White, (London: NLB, 1976), 207쪽. 본문에서 인용된 예금 및 지불준비금 숫자도 208-09쪽에서 찾은 것이다. 암스테르담 은행을 모델로 삼은 두 개의 유럽 은행들은 베니스 은행과 함부르크 은행이다. 이들은 모두 1619년에 세워졌다. 베니스 은행이 엄격한 보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결과 1797년에 사라진 반면, 함부르크 은행은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 1873년 라이히스뱅크(Reichsbank)가 나타날 때까지 존속했다. J.K. Ingram, "Banks, Early European," in *Palgrave's Dictionary of Political Economy*, Henry Higgs, ed. (London: Macmillan, 1926), vol. 1, 103-06쪽.

막바지에 이르러, 유럽에 갑자기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금과 은이 대량으로 밀려들기 시작해 일시에 시장에 풀릴 경우,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리란 건 자명합니다.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그 금속을 주괴로 바꾸어 은행에 예치했는데, 은행은 아주 낮은 비용으로 그것을 보관했다가 한 번에 조금씩 꺼내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보아가며 다른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돈이 너무 빠르게 시중에 나온다면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 제한된 고정 수입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터였기에, 은행은 여러 채널로 서서히 분배되도록 하면서 산업에 생명을 불어 넣고 무역을 증진시켰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이 도시 무역상인들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은행 덕분에, 유럽 전체는 가격 안정과 환전의 균형, 주화에 쓰이는 두 가지 금속 간의 보다 안정된 비율이 가능했습니다. 이 은행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문명 세계의 무역과, 정치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은 핵심 부품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¹⁰⁵

우리는 암스테르담 은행이 기탁금을 횡령해서 기형적인 이득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대신, 앞에서 언급한 사라비아 데 라 칼레와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이 은행은 기탁금의 보관 수수료에서 나오는 겸손한 이익과, 환전, 그리고 스탬프 찍은 금괴와 은괴 판매로 얻어지는 작은 수입에 만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은 은행 경영과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했고, 초창기의 맹세를 지키는 정직한 이 금융기관에 수익을 안겨주고 유지시킬 수 있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의 위대한 명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는 1782년 스페인 반초 데 산 카를로스(Spanish Banco de San Carlos)의 법인 설립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이 은행에는 처음부터 암스테르담 은행과 같이 보편적 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굳은 약속 따위는 없었고, 기탁금, 권력,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부의 재무부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세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암스테르담 은행의 거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이 은행 헌장 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은행에] 개인이 기탁물 혹은

동등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누구든 예금하고 싶은 사람은 예금을 해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돈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혹은 현금으로 조금씩 인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객들은 서로 간에 현금으로 직불 거래를 않아도 되고, 대신 발행된 수표를 받아 그 은행에 가지고 가면 현금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해야 할 일은 네델란드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기탁금과 관련해 상인이

¹⁰⁵ Vilar, *A History of Gold and Money, 1450-1920*, 209쪽.

은행에 지불해야 할 액수를 결정하고, 할인과 어음교환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설정하는 일이다.¹⁰⁶

데이비드 흄과 암스테르담 은행

암스테르담 은행의 위대한 명성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와 지성들의 소개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데이비드 흄이 자신의 에세이 『돈에 관하여(Of Money)』에서 언급한 내용이 가장 유명하다. 이 에세이는 1752년에 에딘버그에서 출판된 『정치론(Political Discourses)』에 다른 에세이들과 함께 처음 실렸다. 여기에서 그는 지폐(Paper Currency)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일하게 지불능력이 보장되는 금융 정책이란, 불규칙기탁을 지배하는 전통적 법 원칙에 따라 100% 지급준비율을 유지하도록 은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흄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인위적으로 신용을 늘리는 것이 무역 국가의 관심사가 되어선 안 된다. 이는 오히려 그 국가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과 상품에 대해 자연 비율 이상으로 통화를 늘려서 제품 제조업자에게 그 가격을 인상시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객에게서 맡은 돈을 모두 금고에 잠가 보관하는 은행보다 더 이득을 보는 은행이 있어선 안 되고, 절대 그 돈의 일부를 상업활동에 되돌리는 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를 늘려서도 안 된다.* 공공 은행은 이런 처방을 통해 민간 은행과 금전 중매인(*money-jobbers*)의 거래활동을 많은 부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국가가 공공 은행의 임원과 직원들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앞서 가정한 것에 따라 보건대, 이 은행은 운영에 어떤 수익도 얻지 않을 것이지만), 낮은 임금과 신용 화폐(paper credit)의 폐지로 인해 국가적인 이점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⁰⁷

¹⁰⁶ 우리가 인용한 사본의 원본은 *the Real Cédula de S. M. y Señores del Consejo, por la qual se crea, erige y autoriza un Banco nacional y general para facilitar las operaciones del Comercio y el beneficio público de estos Reynos y los de Indias, con la denominación de Banco de San Carlos baxo las reglas que se expresan*이다. (H.M과 위원회의 왕실 칙허에 의해, 신세계와 이들 왕국들의 공동의 이익과 무역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적인 국립 은행이 설립되고 이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 은행에 부여된다.) 이 원본은 Pedro Marín (Madrid, 1782 31-32쪽, 이탤릭체 추가됨)에 의해 인쇄되었다. 산카롤로스 은행(Banco de San Carlos)의 역사에 대한 훌륭한 프로필은 Pedro Tedde de Lorca가 *El banco de San Carlos, 1782-1829* (Madrid: Banco de España and Alianza Editorial, 1988)라는 제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¹⁰⁷ 인용 출처: David Hume,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Eugene F. Miller ed, Liberty Fund, Indianapolis 1985, 284-85쪽. 이탤릭체 추가됨.

은행이 아무 수익도 못 거둔다는 그의 주장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의 경우처럼 보관 수수료가 업무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적당한 수익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명확하며, 이런 특징들을 가진 공공 은행의 설립을 옹호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백여 년 넘게 좋은 선례로 자리 잡고 있는 암스테르담 은행의 성공이 있었다. 1753-1754년, 런던과 에딘버그에서 네 권으로 발행된 『여러 주제들에 관한 에세이와 논고(Essays and Treatises on Several Subjects)』 제3판에서, “고객에게서 맡은 돈을 모두 금고에 잠가 보관하는 은행보다 더 이득을 보는 은행이 있어선 안 된다”라는 문구에 흠은 각주를 달았다. 각주 4번에는 “암스테르담 은행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암스테르담 은행을 은행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강조할 의도로 이 각주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에서 100%의 지불준비금 요건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흠이 아니다. 그 이전에도 제이콥 반더린트(Jacob Vanderlint)(1734), 그리고, 특히 영국 조폐국 수장이었던 조셉 해리스(Joseph Harris)가 있었다. 해리스에게 있어 “실재하는 보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수표를 발행하는 한” 은행이란 유용한 존재였다.¹⁰⁸

제임스 스튜어트 경, 아담 스미스, 그리고 암스테르담 은행

제임스 스튜어트 경은 『정치경제학 원리에 대한 연구: 자유 국가의 국내정치에 관한 에세이(An E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economy: Being an Essay on the Science of Domestic Policy in Free Nations)』라는 제목으로 1767년에 출판된 논문에서 암스테르담 은행의 업무에 대해 당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2권 39장에서, 스튜어트는 “암스테르담 은행을 통한 동전의 시중 유통”을 분석한다. 그는 “은행 장부에 기록된 모든 돈은 실제로 동전으로 은행 저장소에 보관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은행 규정에 의하면, 누가 신용 대부를 요구하든 동전 한 푼도 발행될 수 없다. 은행 장부에 기록된 신용과 저장소에 보관된 현금 잔고는 확실히 균형을 유지하고, 예금 통화의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감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¹⁰⁹

스튜어트에 따르면, 은행 업무는 기존의 투명성을 갖지 않는다는 성향에 따라

¹⁰⁸ Rothbard, *Economic Thought Before Adam Smith*, 332-35, 462쪽 인용.

¹⁰⁹ 원판에서 인용함. A. Miller and T. Cadell 출판, Strand (London, 1767), vol. 2, p. 301; 이탤릭체 추가됨. 스튜어트의 분석 이전에, 암스테르담 은행 운영에 관해 보다 피상적인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Abbot Ferdinando Galiani의 유명한 저서, *Della moneta*이다. 원판 발행인: Giuseppe Raimondi (Naples, 1750), 326-28쪽.

“최대한 비밀스럽게 이루어졌고”, 특히 암스테르담 은행처럼 정관 활동 요강에 지급준비율 100%의 유지를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수였다. 만약 스튜어트의 주장이 옳고 이 지급준비율 원칙이 때로는 지켜지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때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사실을 은폐했을 것이 틀림없다.

1770년대 말에 이르러 암스테르담 은행이 창립의 기초가 되었던 원칙을 위반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보이긴 하지만, 1776년에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여전히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금고에 보관한 어떤 기탁금도 빌려주지 않지만, 장부상에서 대출을 해준 모든 길더(guilders, 네덜란드의 이전 화폐 단위. 2002년에 유로로 대체됨: 역주)만큼, 같은 가치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금괴로 금고에 잘 보관해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발행한 영수증에 해당하는 돈이나 금괴를 실제로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것들은 언제든지 요청이 있을 때 돌려줘야 하며, 실제로 끊임없이 금고에 들어오고 나감을 반복한다는 의미다. 당시 암스테르담에서는 길더가 은행 돈(bank money)으로써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는데, 모든 길더에 상응하는 양의 금이나 은이 실제로 은행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신뢰가 확립되어 있었다.¹¹⁰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시(市)가 위에 묘사된 암스테르담 은행의 운영을 보장했다고 한다. 매년 바뀌는 네 명의 시장(市長)들의 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다. 시장은 은행에 가서 금고의 현금과 장부에 기입된 예금 기록을 대조하고, 두 가지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고 엄숙하게 맹세하며 선언했다. 아담 스미스는 비아냥을 섞어 말하길, “이 진지하고 종교적인 나라에서 맹세란 아직 무시되지 않는 관행이었다.”¹¹¹ 그는 이런 행위들 모두가 은행 예금의 절대적 안전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했다는 것과, 이 사실은 네덜란드의 여러 정치 혁명 사례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이야기를 끝맺는다. 어떤 정치 정당도, 이 은행이 경영에 소홀했다고 비난할 수 없었다. 일례로 그는 1672년에 프랑스 왕이 위트레흐트로 진군하여 네덜란드가 외국 군대에 의해 정복될 위험에 빠졌을 때도 암스테르담 은행은 요구불예금의 마지막 상환 요청까지 다 들어 주었던 사실을 지적한다.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은행의 절대적 지불 능력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¹¹⁰ Adam Smith의 원판,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W. Strahan and T. Cadell in the Strand, 1776), vol. 2, 72–73쪽.

¹¹¹ 같은 책, 73쪽.

암스테르담 은행이 100%의 지급준비율을 갖추고 있었다는 데 대한 추가적인 증거로서, 아담 스미스는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은행에서 발견된 몇몇 동전들에서 화재의 흔적이 보였는데, 1609년 설립 직후 이 은행을 훼손시켰던 그 건물 화재 때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그 동전들이 150년 이상 은행에 계속 보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아담 스미스는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측이 기탁자가 되어야 한다는 불규칙기탁 계약의 진정한 법적 성격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은행의 수입은 보관 수수료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암스테르담 시는 이 은행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 앞서 거론한 창고 임차료 외에도, 모든 사람들은 이 은행에 처음 계좌를 열 때 10 길더를 수수료로 내야 했고, 새로운 계좌에는 3길더와 3 스타이버(stiver, 네델란드의 옛 니켈화: 역주), 양도의 경우 2 스타이버, 그리고 만약 양도 거래가 300 길더 미만일 경우에는 6 스타이버를 내야 했는데, 이는 소규모 양도 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¹¹²

이 외에도,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은 환전과 금괴 및 은괴의 판매 수익 등 다른 수입원도 거론한다.

불행히도 1780년대 들어 암스테르담 은행은 설립의 근간을 이뤘던 법 원칙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한다. 제 4차 영국-네델란드 전쟁 때부터 지급준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곳곳에 보이는데, 암스테르담 시가 공공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 기탁금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시 예금액은 2천만 플로린이었는데 은행 금고에 보관된 귀금속의 가치는 겨우 4백만 플로린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은행 설립의 근간이 되었고 170년 동안 존속해 온 기탁금 보관이라는 핵심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급준비율이 100%에서 25%로까지 떨어졌다는 의미로, 암스테르담 은행의 오랜 명성이 추락했음을 뜻한다. 그때부터 기탁금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1820년에는 140만 플로린으로까지 감소했다.¹¹³ 암스테르담 은행은 역사상 100% 지급준비율을 유지했던 마지막 은행이었고, 이 은행의 퇴장은 보편적인 법 원칙에 근거해 은행을 세우고자 했던 마지막 시도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암스테르담이 누렸던 금융 산업의 우위는 신용확장, 예금, 지폐에 바탕을 둔 훨씬 불안정하고 지불 능력은 떨어지는 영국의 금융 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

¹¹² 같은 책, 74쪽.

¹¹³ Vilar, *A History of Gold and Money, 1450–1920*, p. 208. 암스테르담 은행의 운영에 대해서는 Wicksell, *Lectures on Political Economy* vol. 2, 75–76쪽을 참고하라.

스웨덴과 영국의 은행

암스테르담 은행을 선례로 1656년에 설립된 스톡홀름 은행(Riksbank)은, 암스테르담 은행을 모방한 지급준비율 100%로 예금 보호에 전념하는 기관과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분리되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별개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으로만 분리되었을 뿐으로, 스톡홀름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이 확립했던 기준들을 얼마 못 가 곧 포기했다.¹¹⁴ 스웨덴 정부 관료들은 1668년에 이 은행을 국유화하여 최초의 현대식 정부은행으로 만들었다.¹¹⁵ 이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이 계속 견지해 오던 기존의 원칙들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불법행위를 체계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실제로 받은 현금 이상의 은행권 또는 예금 금액 증명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은행권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고 실제의 총 예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발행하여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은 *촉망 받는* 은행업무가 되었고, 뒤이은 두 세기 동안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은행권 발행이 A.P. 어셔의 말처럼 맨 처음부터 은행업의 핵심에 있었던 가짜 신용확장, 예금 창출과 똑같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한편, 오렌지 왕조가 영국의 왕위에 즉위한 뒤, 네델란드가 영국에 행사했던 강한 영향에 따라 암스테르담 은행을 모범으로 1694년 영란 은행이 설립된다. 그러나 이 은행은 암스테르담 은행처럼 예금에 대한 안전 보관의 법적 보장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정부 재정에 대한 융자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 은행과 정부가 아주 흔하게 조직적으로 저질러온 횡령 행위들을 근절시키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¹¹⁶,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마디로, 영란 은행은 결국 파산했다. 정부의 은행이라는 특권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과, 영국 내 유일한 유한 책임 회사였다는 점, 은행권 발행에 대한 독점적 허가를 받았다는 점도

¹¹⁴ 이런 의미에서, Kindleberger가 *A Financial History of Western Europe*, 52-53쪽에서 지적하듯이, 릭스은행(Riksbank)의 조직 체계는 2세기 후인 1844년에 은행조례(the Peel Act)로 정한 영란 은행 구조의 선구자였다.

¹¹⁵ 1968년에 스톡홀름 은행 300주년을 기념하여 이 은행이 낸 기부금이 매년 열리는 노벨 경제학상에 수여되었다.

¹¹⁶ 예를 들어, 1640년에 찰스 1세(Charles I)는 백년 전 스페인에서 자신과 이름이 같았던 카를 5세(Charles V) 황제가 추구했던 정책을 따라 하듯이 런던 탑에 보호와 보관을 위해 기탁된 황금과 귀중품들을 가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귀중품의 안전한 보관소라는 조폐국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로부터 32년 후, 찰스 2세 역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황실 재무부는 지불정지를 선언하고, 황실에 대출을 확장해 주었거나 요구불예금으로 직접 재무부 발행의 장기 채권을 구입했던 많은 민간 은행들이 파산했다. Kindleberger, *A Financial History of Western Europe*, 53-54쪽 참고.

소용없었다. 기탁금의 안전 보관 의무를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은행 기탁금을 재무부에 대한 대출과 전대금(前貸金)(advances)에 사용한 결과, 영란 은행은 남해 버블(South Sea bubble)사건¹¹⁷을 비롯해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1797년에 지불정지를 선언했다. 영란 은행이 예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기가 어려워진 것과 같은 시기인 1797년에는, 영란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으로 세금과 부채를 내야 한다고 선포되었고 정부에 대한 전대금과 대출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¹⁸ 이것이 부분지급준비율과 최종대출자로서의 중앙은행에 기반을 둔 현대 은행 시스템의 시작이었다. 제8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이유와 그들의 역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논리적 무능력,

¹¹⁷ 1720년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영국의 국채를 인수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이 회사는 영란 은행처럼 토리당에서 나온 것으로, 전쟁에 자금을 댈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이 회사에 특권을 부여했다. 남해회사 운영자들의 진짜 목적은 국채로 최대한 많은 새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 주식을 늘리는 투기였다. 그 한해 동안 영란 은행은 남해회사가 한 것처럼 자사 주식을 투자자들이 보다 많이 살 수 있도록 자사 주식에 대해 대부를 늘렸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고 회사와 은행 주식의 가격은 크게 올라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대다수 회사 간부들을 포함한 투기자들은 이런 수익을 이용했다. 곧 이익의 일부가 토지에 투자되고, 그 값이 다시 크게 올랐다. 존 로의 투기 네트워크가 파리에서 상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했던 1720년 여름, 이 투기자들과 인플레이션 마니아들의 투기 행위는 일제히 급작스럽게 멈춘다. 일단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폭락을 막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남해회사의 주식 가치는 9월에 775 포인트였던 것이, 10월 중순에는 170 포인트까지 급락했고, 영란 은행의 주식은 단지 한달 사이에 225 포인트에서 135 포인트까지 빠졌다 이에 의회는 거품법(Bubble Act)을 통과시켰고 그로 인해 그 때부터 회사 설립에 엄격한 제한이 생겼다. 1722년에 수 없이 많은 어려운 협상을 거치고 난 후에야 금융 문제의 심각한 상황이 다소 누그러졌다. 그 해, 의회는 영란 은행과 남해회사 간에 이루어진 협의를 승인하고 전자가 후자로부터 매년 재무부가 보증한 5%의 지불금으로 4백만 파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으로 명시했다. 제7장의 각주 43번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라.

¹¹⁸ 이 시점부터 많은 이론가들, 특히 미국의 이론가들은 은행가와 정부의 암묵적이거나 또는 노골적인 결탁에 의해 개인의 자유에 많은 위협이 가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유형의 협정은 은행에 여러 가지 특권을 지속적으로도 조직적으로 허용해, 은행들이 예금의 현금 지불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법률적 약속을 위반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후반의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존 테일러(John Taylor)는 이 관행을 사기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미적지근한 정책 탓에 은행의 범죄건수는 그 수를 더해가지만 그들을 처벌한 기록은 없다. 그건 그들이 한번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John Taylor, *Construction Construed and Constitutions Vindicated* (Richmond, Va.: Shepherd and Pollard, 1820; New York: Da Capo Press, 1970), 182–83쪽 참조. 이 주제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글로는 James P. Philbin, “An Austrian Perspective on Some Leading Jacksonian Monetary Theorist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0, no. 1 (Fall, 1991): 83–95, 89쪽을 참조하라.) 머레이 N.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초기 미국 역사에서 부분지급준비금은행의 출현에 대해 잘 정리했다: “Inflation and the Creation of Paper Money,” chapter 26 of *Conceived in Liberty*, vol. 2: “Salutary Neglect”: *The American Colonies in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New York: Arlington House, 1975), 123–40쪽; 2nd ed. (Auburn, Ala.: Ludwig von Mises Institute, 1999).

그리고 중앙은행 대 자유은행의 논쟁과 그것이 통화, 은행, 경기 순환에 관한 여러 이론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다뤄보겠다. 본 장을 완성도 있게 마치기 위해 18세기 프랑스에 있었던 은행업과 지폐의 발달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존 로와 18세기 프랑스의 은행업

18세기 프랑스의 은행업과 돈의 역사는 스코틀랜드 금융인이었던 존 로와 그가 만들어 내어 실행에 옮겼던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는 프랑스 섭정 필립 도를레앙에게 이상적인 은행이란 기탁 받은 예금을 사용하는 은행이라고 설득하면서, 이렇게 하면 유통되는 돈을 불려서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존 로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경제 간섭주의처럼, 세 가지 요인들에서 생겨났는데, 이 요인들은 서로 다르면서도 동시에 연관되어 있다. 우선, 기존의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원칙, 특히 기탁금의 100% 보호 및 보관을 위한 요건에 대한 무시다. 두 번째는, 겉보기에 이로워 보이는 목적을 가능한 빨리 달성하기 위해 법 원칙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오류다. 세 번째는, 제안된 개혁안에서 큰 이득을 챙길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의 조합은,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존 로와 같은 정치적 몽상가가 자신의 “은행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 사실, 은행은 일단 대중의 신뢰를 얻고 나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의 은행권을 발행하고 기탁금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시작한다. 유통되는 은행권 수량은 매우 빠르게 늘어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심각한 가짜 경기 호황이 일어났다. 1718년에 은행은 황실 은행으로 국영화되었고, 더 많은 은행권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 투기를 부추겼는데, 특히 존 로가 신대륙 내 프랑스령 식민지화를 가속화하고 무역업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한 *Compagnie de la Louisiane ou d'Occident*의 주식, 또는 미시시피 무역회사의 주식을 투기적으로 사고 팔게 만들었다. 1720년이 되자 금융 거품의 불안한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존 로는 미시시피 회사의 주가와 은행 지폐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은행과 미시시피 회사를 합병했다. 그리고 회사 주식을 법정통화로 선언하고 동전은 지폐 가치와 비례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본래 무게에서 일부를 제거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그러나 모두 소용없었다. 인플레이션 거품이 터지자 재정상의 파멸은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과 무역 회사를 믿었던 수많은 프랑스 투자자들까지 덮쳤다. 손실이 너무 엄청나고 이로 인한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후 백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은행”이란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실례로 간주되었다. 이 단어는 한동안 “사기”와 동의어로 쓰였다.¹¹⁹ 수십 년 뒤, 인플레이션으로

¹¹⁹ 프랑스에서 존 로의 악명 높은 은행 파산 사건을 직접 겪었던 학자 Ferdinando Galiani는 자신의 이 당시 경험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Ferdinando Galiani, *Della moneta*, 329-34쪽; 그리고, Sir James

인한 황폐가 또다시 프랑스에 전염병처럼 번졌는데, 이는 당시 혁명 기간 동안 심각한 통화 혼란이 일어나고 아시냐 지폐(assignat, 프랑스 혁명 때 정부가 발행한 것: 역주)가 통제 불능 상태로 시중에 풀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현상들이 프랑스인의 집단인식에 영구적인 인상을 남겨, 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폐 인플레이션의 심각한 위험을 인지하여 상당량의 금화와 주괴를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사실, 프랑스는 인도와 함께 세상에서 개인 금고에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다.

이처럼 은행 실험에서는 불운한 실적을 냈지만, 존 로는 화폐 이론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공헌한 것으로 여겨진다. 통화 팽창론적이고 케인즈 이론의 원형같은 그의 이론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칼 멩거(Carl Menger)가 그랬던 것처럼, 존 로는 자발적이고 진화적인 화폐의 기원에 올바른 이론을 공식화한 최초의 인물이다.

리샤르 칸티용(Richard Cantillon)과 불규칙기탁 계약의 사기 침해

18세기와 19세기 초 가장 주목할 만한 세 명의 화폐 이론가들이 모두 존 로, 리샤르 칸티용¹²⁰, 헨리 손턴(Henry Thornton)과 같은 은행가 출신이었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들의 은행은 모두 파산했다.¹²¹ 칸티용만이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고 빠져

Steuart, *An E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economy*, Vol.2, 23장에서 35장, 235-91쪽 참조. 18세기 프랑스의 금융, 화폐, 은행 시스템에 관한 계몽주의적이고 이론적으로 견고한 분석은 F.A. 하이에크의, “18세기 프랑스에 최초로 출현한 지폐(First Paper Money in Eighteenth Century France)” 를 참고하라. 이 글은 *The Trend of Economic Thinking: Essays on Political Economists and Economic History*, vol. 3 of *The Collected Works of F.A. Hayek*, W.W. Bartley III and Stephen Kresge, e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10장, 155-76쪽에 나온다. 존 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전기에 대해서는 Antoin E. Murphy, *John Law: Economic Theorist and Policy Maker* (Oxford: Clarendon Press, 1997)을 참고하라.

¹²⁰ 리샤르 칸티용은 “안전한” 은행 운영은 10%의 지급준비율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 “Dans ce premier exemple la caisse d’un Banquier ne fait que la dixième partie de son commerce.” 가명으로 출판된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en général*, in London, Fletcher Gyles in Holborn, 1755의 원판 400쪽을 참고하라. 믿기 힘들지만, 머레이 로스바드는 칸티용 연구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Rothbard, *Economic Thought Before Adam Smith*, 345-62쪽.

¹²¹ Thornton의 은행은 1825년 12월, 그가 죽은 후에야 파산했다. Henry Thornton,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Effects of the Paper Credit of Great Britain* (1802년 초판 발행, 1987년 Augustus M. Kelley 재간행)에 부치는 F. A. Hayek. “Introduction” 34-36쪽을 참조하라. A.E. 머피는, 존 로와 칸티용은 둘 다 경제학자일 뿐으로, 살인과 기타 죄명으로 기소되었던 Antoine de Montchrétien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A.E. Murphy, *Richard Cantillon: Entrepreneur and Economist* (Oxford: Clarendon Press, 1986),

나왔는데, 그건 그가 위험한 투기를 제때 멈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객의 자산에 대한 안전 보관의 의무를 저버리는 사기 행동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칸티용은 불규칙기탁 계약을 명백히 위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기탁금은 화폐가 아니라 존 로가 세운 미시시피 무역 회사의 주식이었다. 칸티용의 사기 계획은 이러했다. 많은 돈을 고객에게 대출해 주고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사게 만든다. 단, 이 주식을 칸티용의 은행에 담보로 계속 남겨두는 조건으로 말이다. 이 경우 불규칙기탁물은 주식이 되는데, 주식도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대체가능물이다. 나중에 칸티용은 고객들 모르게 기탁된 증권을 횡령하고, 시장가격이 높다고 판단될 때 팔아 현금으로 보유했다. 주식들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모두 상실하자 칸티용은 예전 가격의 일부 값으로 그것들을 되사서 기탁물을 회복하고 두둑한 이윤을 챙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객들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때는 고객들이 은행에 보유했던 담보물이 제로에 가까운 가치밖에 안 되어, 이미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기적 운영은 칸티용에 대한 여러 건의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는 체포되어 잠시 감금되었다가 프랑스를 떠나 서둘러 영국으로 도주했다.

자기변호의 방편으로 칸티용은, 불규칙기탁과 대부를 혼동시킬 의도로 중세기 작가들이 자주 사용했던 것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사실 그는 변호표시가 되지 않은 대체가능물로 자신에게 기탁된 주식은 진정한 기탁물이 아니며, 이것은 은행가에게 전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되어 사용할 수 있는 대부라고 주장하는 논리로 자신을 변호했다. 이렇게 칸티용은 자기가 한 행위를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법정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걸 잘 안다. 비록 증권 기탁이 대체가능 상품의 불규칙기탁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주식의 보관과 지속적 관리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칸티용이 주식을 팔아 결국 고객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는 명백히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다. F.A. 하이에크(F.A. Hayek)는 사기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 칸티용의 시도를 이렇게 설명한다.

칸티용 본인이 나중에 해명한 바와 같이, 그의 주장은 맡겨진 주식은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기탁이 아니라 일종의 덩어리 기탁으로, 고객들 중 누구도 특정 증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 회사가 실제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방법은, 고가로 주식을 매각하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환매하고, 자신의 자본에는 높은 이자를 매겨, 전혀 잃는 것 없이 오히려 파운드에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칸티용은 전대금의 일부를 자신의

237쪽 참고. Thornton은 종교적이고 금욕적인 명성 덕분에 적어도 그런 잔학한 행위로 고소되지는 않았다.

이름으로 빌려줬는데 그 대출 상환을 요구했을 때는 그 채무자들이 이미 투기로 큰 손실을 입은 후였다. 칸티용은 이들 채무자들을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채무자들은 칸티용과 회사가 주식에서 거둔 수익에서 그들의 채무를 상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오히려 런던과 파리의 법정에 칸티용을 세워 사기와 고리 착복죄로 고발했다. 칸티용과 회사 사이에 오고 간 서신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들은 거래 전체가 칸티용의 직접 지시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그가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²

다음 장에서는 증권의 불규칙기탁의 침해가 금전의 불규칙기탁의 침해와 같이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모두 관습화되기 쉬운 악행이며, 사회 경제에 확실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살펴 보겠다. 이와 관련된 20세기의 완벽한 사례로는, 증권의 불규칙기탁을 체계적으로 수용했다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바르셀로나 은행과 몇몇 카탈로니아 은행들의 파산이 있다.¹²³ 정확히 2백년 전 칸티용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이익을 거두기 위해 온갖 종류의 투기 활동에 예금을 사용한 결과, 진짜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리샤르 칸티용은 12년에 걸친 소송, 두 번의 체포, 그리고 끊임없는 감옥행의 위협 끝에 1734년 자신의 런던 자택에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공식적 기록에는 그가 돈을 빼앗으려던 전 요리사에게 살해되어 시신이 알아볼 수 없게 불에 탔다고 되어 있지만, 그의 수많은 채권자들 중 한 명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설도 설득력이 있다. 또는 가장 최근의 칸티용 전기 작가인 A.E. 머피의 의견에 따르면 칸티용은 더 많은 소송과 법정싸움에서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연출했다는 얘기도 있다.¹²⁴

¹²² Hayek, "Richard Cantillon (1680–1734)," *The Trend of Economic Thinking*, 13장, 245–93, 284쪽을 참조하라. 칸티용의 변호사 Henry Cochin가 쓴 보고서, *Memoire pour Richard Cantillon, intimé & apellant* (Paris: Andre Knapen, 1730)도 참고해 볼 가치가 있다.

¹²³ 20세기 전까지 칸티용과 이후의 카탈로니아 은행가들이 저지른 증권의 불규칙기탁과 횡령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고한다: *La cuenta corriente de efectos o valores de un sector de la banca catalana: su repercusión en el crédito y en la economía, su calificación jurídica en el ámbito del derecho penal, civil y mercantil positivos españoles según los dictámenes emitidos por los letrados señores Rodríguez Sastre, Garrigues, Sánchez Román, Goicoechea, Miñana y Clemente de Diego, seguidos de un estudio sobre la cuenta de efectos y el mercado libre de valores de Barcelona por D. Agustín Peláez, Síndico Presidente de la Bolsa de Madrid* (Madrid: Delgado Sáez, 1936).

¹²⁴ Antoin E. Murphy, *Richard Cantillon: Entrepreneur and Economist* (Oxford: Clarendon Press, 1986), 209, 291–97쪽 참고. 머피는 마지막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언급한다: (1) 칸티용은 살해되기 하루 전 자산의 일부를 청산했다. (2) 시신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에 탔다. (3) 이 살인 사건에 대해 그의 가족이 이상하리만치 무관심해 보였다. (4) 피고인은 이상하게

행동했는데, 그것은 결코 전형적인 살인자의 행동이 아니었다.